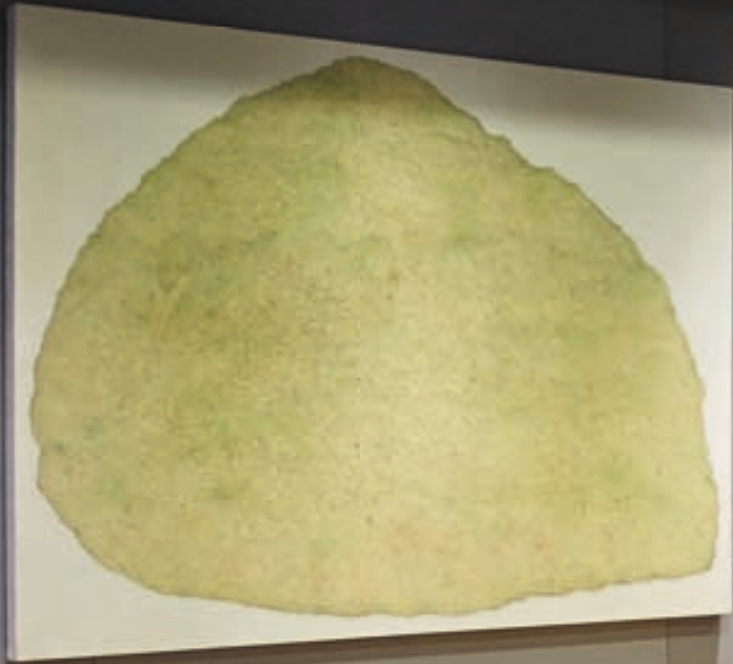


WONIKIN


AUTUMN

행복°
금지과 보람

WONIK GROUP MAGAZINE
2018 VOL. 56



판교사옥 지하 1층
PDR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페달을 놓치고 헛발 구르기를 여러 번,
그러다 어느 순간 비틀비틀 앞을 향해 나아가던 때를요.
그날 머리칼을 스친 바람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은 긍지의 바람일 것입니다.
뿌듯한 기분을 안고 동네 어귀를 한 바퀴 돌아왔을 때의 보람은 또 어떤가요?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행복의 길로 한 발짝 내디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원익이라는 자전거에 앉아 긍지의 페달을 밟고
보람의 핸들을 가누며 목적지인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흔들릴지라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을지라도 원익인들과 함께라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힘껏 페달을 밟아 봅시다.

WONIK IN

WONIK MAGAZINE
#56 AUTUMN 2018

원익 사보 2018년 가을호
원익인 통권 제 56호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인 박영규
발행처 원익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기획 디자인 PEOPLE PAGE 02.6674.7845

사보 <원익인>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익인>에 실린 글과 사진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의 사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원익그룹 사보기자단

원익홀딩스 소병오
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원익머트리얼즈 조수영
원익큐엔씨 이민희 테라세미콘 최예란
원익 이기복 씨엠에스랩 박지현
위닉스 안희태 원익엘앤디 최세현
하늘물빛정원 이찬우
원익투자파트너스 윤용인

원익그룹 사보담당자

이호철 / 서재원 / 안예인



- 04 **SPECIAL THEME**
금지와 보람, 박맹호 회장의 출판 외길
- 08 **BETTER TECH 1**
더 나은 미래로의 동행-
디지털 시대의 반도체
- 12 **BETTER TECH 2**
배터리 시장에 내려진 특명 - 신소재 개발

DEEP

- 18 **BOSS VS LEADER**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리더
원익테라세미콘 김계현 팀장
- 26 **생일 축하해요**
당신의 기쁜 날, 가득히 축하드립니다
원익머트리얼즈 허광욱 과장
- 30 **WONIK HERO**
특출한 용기로 일군 남다른 용기 관리
원익머트리얼즈 김민철 과장
- 34 **A WEEK 52H**
사랑의 시간을 만들다
원익테라세미콘 흥봉기 부장
- 38 **명단공개**
원익인물사전
원익테라세미콘 김지나 과장 & 최성원 과장
- 40 **원익월드**
여기보다 어딘가에
원익머트리얼즈 고경현 과장 &
원익테라세미콘 장성민 과장
- 44 **밥 한 번 먹어요**
보증된 사람들의 의기투합
- 50 **THE WAY**
큰 목표로 같이 만들어 갑시다
원익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이사

- 54 **특별한 덕후님**
삶에 퍼지는 핑크빛 한 방울
- 58 **맛있는 시간**
간식으로 파워 UP! 팀워크도 UP! UP!
- 64 **명작예찬**
세밀한 꽃의 화가, 김홍주

WIDE

- 68 **원익은 지금 ❶**
나의 자부심은
너의 금지가 되리라
- 74 **원익은 지금 ❷ 원익머트리얼즈**
한마음의 날갯짓, 보람의 바람으로
- 78 **원익은 지금 ❸ 씨엠에스랩**
지금 가장 핫한 그들. 박막레, 조현우
그리고 셀퓨전씨
- 84 **원익은 지금 ❹ 원익아이피에스**
발전을 위해 먼저 발전하는 사람들
- 88 **행복일터**
서로를 인정할때 금지와 보람이 솔솔
- 90 **NEWS FOCUS**
- 104 **THANKS FOR YOU**
- 105 **EDITOR'S LETTER**



금지
와
보람,
람,

박맹호 회장의 출판 외길

출판사
민음사(民音社)

사업을 키워나가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이윤이다. 사업가들은 돈이 될 만한 사업을 찾아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편리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한다. 출판은 이미 인류의 문명에서 부터 시작된 고정 산업이기에 이윤을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박맹호 회장은 금지와 보람으로 만들어 낸 책은 인간을 사유 하게 하고 행복으로 안내한다고 믿었으며 옥탑 방으로 시작했던 민음사는 그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출판계의 기둥이 되었다.

박맹호(1934-2017)



민중의 소리를 담다 민음사(民音社)

한 번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는 문구를 보았을 것이다. 이 짝막한 문장에서 알 수 있듯, 출판업이란 사명감과 긍지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사업이다.

자유를 억압당하고 먹고살기에 급급하던 시절, 독서는 사치에 가까웠으며 그마저도 엄격한 검열 하에 이루어졌다. 박맹호 회장은 이에 저항하고 민중이 양질의 깊이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966년, 민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청진동의 한 옥탑 방에서 홀로 시작한 민음사는 설립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느껴질 만큼 단출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까짓 책 파지로 팔아야 몇 폰이나 벌겠냐’며 지원을 거절했고, 운영을 위해 아내의 패물을 팔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좁은 곳에서부터 시작해 ‘오늘의 시인 총서’ 시리즈를 만들어 비인기 장르였던 시의 독자층을 두텁게 했으며 ‘오늘의 작가상’을 제정함으로써 신인 소설가들이 고개를 내밀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책은 사람의 디딤돌이 되지만 작가 또한 디딤돌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기에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놓은 것. 한국문단의 거목으로 불리는 이문열 작가도 여기서 탄생했다. 박맹호 회장은 자신의 일생 중 가장 큰 보람은 새로운 문장을 가진 작가들을 발굴해 민중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회고했으며 2017년 1월, 별세하기 직전까지 그 열망을 놓지 않았다.

모험심의 원동력, 긍지

그가 출판사의 큰 별이 되기까지 탄탄대로만 걸어온 것은 아니었다. 민음사 창업 후 첫 책 ‘요가’가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출간한 책들이 속속 실패하는 바람에 빛이 3000만원 까지 불어났다. 한창 괴로워하던 때 일본 책을 번역 없이 복제만 해서 파는 ‘리프린트’를 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책만 잘 고르면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는 고민 끝에 리프린트사업에 뛰어들었고 결론적으로 빛은 모두 갚을 수 있었으나, 복제와 전달은 출판이 아닌 인쇄임을 절절하게 깨달았다. 이후 그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책을 만들 수 있을지 더 깊게 고민하게 됐다.

소리문자인 한글의 가독성을 위해 단행본에 가로쓰기를 도입한 것도 그 결과 중 하나였다. 서양문물이 동아시아에 전래함에 따라 가로쓰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으나, 당시 책이나 신문은 한자문화권의 영향으로 여전히 세로쓰기를 했다. 하지만 한글은 알파벳과 같은 소리문자이기에 가로쓰기는 언젠가 도입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는 도입방안에 대해 고민했고 ‘세계 시인선’을 통해 리프린트를 뛰어넘어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는 방법을 떠올렸다. 당시 외국 시인의 시집은 대부분 일본어판을 중역한 것들이어서 직접 원문을 번역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집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더해 세계시인선의 원편엔 원문을, 오른편엔 번역문을 실으면서 가로쓰기를 활용했고 얼마가지 않아 가로쓰기가 통용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이를 통해 외국 시에 대한 신뢰도와 그 자신에 대한 긍지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긍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었다. 교과서 외엔 제대로 된 학술 서적이 부족했던 1980년대 초반, 대우그룹과 합심하여 만든 ‘대우 학술 총서’가 그것. 각 학계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학술 총서였으나 독자의 호응이 높을 수 없는 분야이기에 상업적 이득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제작비만 충당하면 다행인 지경이었으니 대우 그룹도 1999년 손을 떼고 말았다. 그러나 이때 제작한 학술 도서들은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했고 이는 민음사의 성장에 자양분이 되었다.



보람으로 가는 길, 안내자가 되어주다

그는 자신이 그랬듯, 직원들도 책을 만듦에 있어 긍지를 갖길 바랐다. 때문에 채용하기까지는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일을 맡기고 나면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직원 한 명 한 명이 '진짜'출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 제 1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 '부초'를 편집한 정병규 편집자가 그 대표적인 예. 부초는 정편집자의 첫 작품으로 그는 어두운 추상화를 배경으로 제목을 크게 부각시킨 표지를 만들었다. 문단에서는 소설책 같지 않다는 평이 대대적이었는데, 박회장은 이를 껴넘치 않고 정편집자의 선택을 믿었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또 1990년대에 들어서며, 다양한 분야의 책이 출판됨에 따라 독자들 또한 각자의 영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종전의 출판사 사장의 관심에 따라 출판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시장을 파악하고 트렌드를 살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사장은 관리와 경영을 전담하고 출판의 실무인 편집과 마케팅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인재를 모아 편집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편집자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자긍심과 보람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믿었다. 그리고 편집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정식으로 내려오고 있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편집자는 “어떤 책을 내라고 일방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늘 실무자들의 제안을 신뢰하고 지지했다. 든든한 선장이 있었기에 행복하게 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의 경영철학이 직원들에게까지 잘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이 만드는 것의 가치, 행복의 꽃으로 피어난다

혹자는 출판 산업이 지는 별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박맹호 회장이 출판을 시작한 196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다. 흑백TV가 나왔을 때도,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다들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e북, 아이패드가 등장하며 또 ‘출판은 곧 망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는 책이 가진 힘을 믿었고 모두가 어렵다하는 출판업계에 뛰어든 사람들을 존경했다. 그 밑바탕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이 깔려 있다.

그는 한때 소설가를 꿈꿨다. 하지만 시대에 부딪혀 좌절하고 이에 맞서 민중이 원하는 소리를 담아내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때의 결심은 시대의 작가들을 만들어 냈고, 독자들로 하여금 교양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홀로 풍파를 맞으며 책을 만들던 그의 곁에 같은 결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들며 한 권의 책에 그들의 긍지를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책은 독자의 애정이라는 보람이 되어 돌아온다.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출판업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박 회장과 시대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져놓은 양분이 가득한 땅 위에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풍년도, 흉년도 함께 겪어내고 있기 때문. 이는 출판인들만이 부릴 수 있는 마법이 아니다. 요리사도, 운동선수도, 농부도, 학생도 모두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갖고 해 낼 수 있다는 자부심을 안으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향기를 내기 마련이기에. 그리고 이들이 모여 보람찬 행복을 꽃피운다. **W**



공장의 신. 이제 하신해도 후회하지 않을걸요. 41~50점

이대로도 좋아요. 34~40점

나의 행복을 바란다면 조금만 더 용기내봐요. 21~33점

삶이 힘든 당신.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아요. 10~20점

← 점수 합산으로 진단

긍지·보람 지수 진단 체크리스트

- 무엇을 하든 잘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
- 작은 일을 해도 뿌듯함을 느낀다.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
-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
- 실패를 하더라도 의욕이 쉽게 저하되지 않는다.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
- 새로운 일을 마주하는 것이 기대된다.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
- 퇴근길에는 걸음이 가볍하다.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
-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의심하지 않는다.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
- 당당하게 나의 일을 소개한다.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
-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 즐겁다.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
-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한다.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
5	4	3	2	1

더 나은 미래로의
디지털 시대의 반도체

기록 저장 수단의 진화



B.C 30000

동굴 벽화



B.C 3000

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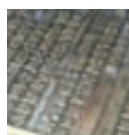
B.C 800

파피루스



AD 105

종이
채륄의 채후지



1377

금속활자



1450

인쇄 책
정보의 대량생산



1830

필름
영상기록 저장



1896

레코드판
음성기록 저장

자동차 산업 전문가로 활동 하였으며, 현재 반도체 산업 전문 잡지 The SEMICON Magazine을 진행. The SEMICON Magazine은 반도체 산업 전시회 SEMICON Korea와 SEDEX의 미디어 파트너로, 기업과 기업의 가고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인류를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만약 기록이 없었다면 후세에 지식을 전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인류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자나 종이 발명되기 전부터 인류는 동굴 벽화나 동물 뼈, 나무껍질 등을 이용해 기록을 남겨왔다. 지나간 날의 인간이 남긴 활동 내역이 후대의 인간에게 전승되어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작동한다는 점에서, 인류 발전은 기록 저장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

지난 2000여 년간 인류 최고의 저장 매체이자 디스플레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온 것은 종이였고, 종이 담지 못하는 멀티미디어 및 컴퓨팅 데이터는 필름과 자기테이프, 광디스크, 그리고 하드디스크 등이 저장을 담당해 왔다. 최근에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플래시 메모리가 인류 문명의 정보와 기록 저장 매체의 메인스트림으로 떠오르고 있다.



1896

천공카드
홀러리스 데스크
컴퓨팅 데이터



1932

자기드럼



1951

자기테이프



1957

하드디스크
5MB



1971

플로피디스크
360KB



1976

광디스크
650MB



1991

NAND플래시
도시바



2013

3D NAND
삼성전자

변화하는 반도체 트렌드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로 나뉜다. PC와 스마트폰 등 각종 IT 기기의 저장장치로 두루 쓰이고 있는 것은 같지만 데이터의 저장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자가 있는 상태를 1, 전자가 없는 상태를 0으로 정보를 인식한다.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로 만들어진 D램은 처리 속도는 빠르지만, 전원이 꺼지면 전자가 모두 없어지면서 데이터가 사라진다. 반대로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에 전자를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는 처리 속도가 D램보다 느리지만 일단 정보가 저장되면 전기 신호가 사라져도 전자가 없어지지 않는다. 전원을 꺼도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 때문에 D램은 PC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각종 앱을 구동할 경우 빠르게 사용자의 명령을 처리할 때 이용되는 반면, 낸드 플래시 반도체는 사용자가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저장할 때 이용된다.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의 제품명을 살펴보다라도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D램은 SDR(Single Data Rate)→DDR(Double Data Rate)→DDR2→DDR3→DDR4식으로 정보 처리 속도와 전력 소비량 등을 종합해 세대를 구분하며, 한 단계를 넘어서 때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대체로 2배가량 빨라진다. 반면 낸드 플래시 제품은 SLC(Single Level Cell), MLC(Multi Level Cell), TLC(Triple Level Cell)와 같은 데이터 저장 방식을 따로 제품명에 표시한다. SLC는 셀 하나에 1비트(bit: 디지털 데이터를 구분하는 최소 단위)의 정보(0 혹은 1)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오히려 이제는 일부 영역 이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추세이고, 2비트의 정보를 기록하는 MLC(00, 01, 10, 11)나 3비트의 정보를 기록하는 TLC(111, 110, 101, 100, 011, 010, 001, 000)가 대세가 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셀 하나에 4비트를 기록하는 QLC 낸드 플래시가 주목받고 있다.



쇼베 동굴벽화

주요 낸드 제조사들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TLC나 QLC처럼 하나의 셀에 많은 기록을 담을 수 있는 기술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아파트처럼 여러 층으로 쌓는 3D 낸드 기술을 통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3D 낸드는 머리카락 굵기의 5만분의 1인 10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수준까지 셀의 간격을 촘촘하게 만들면서 더 좁히기가 어려운 한계에 다다르자 셀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대신 층층이 쌓아 올려 더 많은 정보를 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1층 단독주택(2D)으로 이뤄진 단지에 집 지을 땅이 부족해지자 아파트(3D)를 세워 더 많은 정보를 담기로 한 것이다.

데이터 성질의 변화

왜 점점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한 걸까? 오늘날의 인류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다양한 생각을 기록할 수 있다. 과학자는 실험실이 없이도, 화가는 종이와 물감 없이도, 영화감독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에 공유된 기록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쳐 사람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잠재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고품질 미디어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크기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저장 매체 용량 증대는 끊임없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 한계

하지만 낸드 플래시 자체가 점차 기술적 한계에 접근하고 있어 QLC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록하는 낸드 플래시 기술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3D 낸드 역시 쌓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 3D 낸드는 원통 모양의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증착 공정의 횟수 증가가 불가피하다. 그 때문에 제조 공정에 있어 더 얇고 균일한 증착 기술이 요구되며, 두꺼워진 층 또는 막에 구멍을 뚫거나 특정 층을 제거하기 위한 식각 공정의 난이도 및 횟수도 동반 상승한다. 문제는 쌓으면 쌓을 수록 반도체의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반도체업체들의 비용부담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굴지의 반도체 제조사들은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반도체의 미래

인류에 기록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마도 현재의 문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인류의 발전은 지식전달에서 비롯됐으며, 오늘날 대표 저장 매체인 반도체의 발전이 곧 인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기에 더 많은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는지도 모른다. 지금으로부터 3만 5천 년 전 인류 최초의 정보 저장 매체였던 쏘베 동굴 벽화가 문명의 시작이었다면, 앞으로 3만 5천 년 후 미래에는 과연 어떤 매체가 등장하게 될지 궁금해진다. **W**

2021년,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차 전지 시장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8년 2차 전지 예상 시장 규모는 2017년 대비 약 19% 커진 223억 달러(한화 2조5천 억 원)다. 이렇게 2차 전지의 수요가 높아지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들의 가격도 고공 상승하고 있다.

배터리 시장에 내려진 특명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며 이 외에도 전체, 바인더, 케이스, 안전장치 등이 2차 전지를 구성한다. 4대 핵심 소재의 가격 비율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각각 36%, 13%, 14%, 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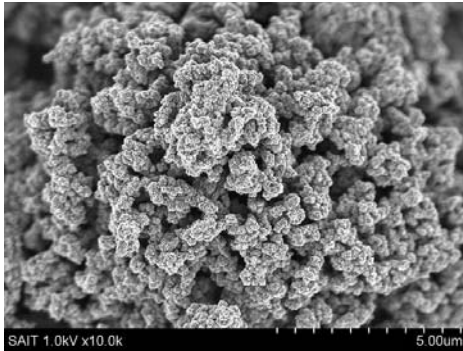
2017년 4대 핵심 소재의 시장 규모는 128억 달러다. 이는 2차 전지 전체 시장의 68%에 달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ESS 업체들은 용량이 크면서도 수명은 길고 가격은 저렴한 배터리를 원한다. 이렇게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기존 소재에서 벗어난 새로운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 신소재 개발



꿈의 소재 ‘그래핀’으로 용량 늘리고, 가격·속도 낮춰

다수의 기업이 2차 전지 신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확보한 ‘그래핀 볼’ 기술이 화제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은 흑연에서 벗겨낸 얇은 탄소 원자 막이다. 안정도가 높아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서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구리보다 전기가 100배 이상 잘 통하고, 실리콘보다 140배 이상 전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어 급속 충전용으로도 이상적인 소재다.



그래핀(Graphene) : 흑연을 뜻하는 ‘그래파이트’(Graphite)와 화학에서 탄소 이종결합 형식을 띤 분자를 뜻하는 접미사인 ‘ene’을 결합해 만든 용어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기술인 ‘그래핀 볼’은 충전 속도는 5배까지 높이면서 저렴한 실리카(SiO₂)를 이용해 성능과 가격을 동시에 잡았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그래핀을 배터리에 적용하고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실리카를 통해 그래핀을 팍콘 같은 3차원 입체 형태로 대량 합성하는 매커니즘을 규명하게 됐다.

이렇게 팍콘처럼 붙어있는 ‘그래핀 볼’을 리튬이온전지의 양극

보호막과 음극 소재로 사용하면 충전용량은 늘고 충전시간은 줄어든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배터리는 고속충전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완충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그래핀 볼을 사용한 배터리는 12분이면 완충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가 요구하는 온도 기준인 60°C까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실 그래핀의 상용화는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다. 그래핀은 띠틈(Band gap)이 없어 금속성을 띠고, 전자의 이동이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는 서울대 연구팀이 고분자산을 그래핀에 도핑 후 공기 중 도핑 효과를 두 달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안정성을 확보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리튬황전지, 가격 비싼 코발트·니켈 대체하나?

양극재는 앞서 언급했듯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중 가격 비율이 가장 높다.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양극재는 전구체를 합성한 양극활물질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전구체로 쓰이는 ‘코발트’와 ‘니켈’의 가격이 비싸 양극재 업체들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코발트는 3년 새 가격이 3배 이상 뛰여 공급이 불안정하다. 코발트의 전체 매장량 중 70% 이상이 콩고민주공화국에 매장되어 있는데, 코발트에 로열티를 추가하려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채굴 속도까지 느려 코발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니켈 또한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가격이 20% 정도 상승 중이다. 최근 전구체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발트와 니켈을 대체할 수 있는 리튬황 배터리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은 최근 리튬황 배터리 개발의 초석을 마련했다. 김도경 교수 연구팀은 리튬황 배터리의 단점 중 전기 전도가 낮고 충·방전으로 인해 부피가 변화하며 반응 생성물인 리튬 폴리설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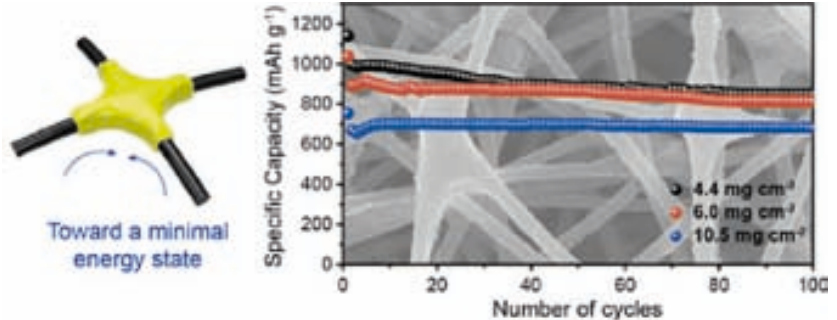
드가 전해질에 녹는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공성 탄소 분말로 황을 감싸 전기전도를 향상시키고 부피변화를 완화시키며 폴리설파이드가 녹는 것을 방지하는 황-탄소 전극 개발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 또한 구형의 0차원 탄소 분말들은 입자 간 무수한 접촉 저항이 발생하고 황을 감싸는 합성 과정이 까다롭고 입자들을 연결하기 위해 고분자 바인더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탄소의 재료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방사를 통해 대량으로 1차원 형태의 탄소나노섬유를 제작했다. 탄소나노섬유를 제작하고 고체 황 분말이 분산된 슬러리에 적신 뒤 건조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접촉 저항을 줄인 황-탄소 전극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종이가 물을 흡수하듯 고체 황이 전기화학 반응 중 중간 산물인 액체 리튬 폴리설파이드로 변화하고 이들이 탄소나노섬유들 사이에 일정한 모양으로 맺힌 후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그 형태를 유지하며 밖으로 녹아나가지 않음을 확인했다. 황을 복잡하게 감싸지 않고도 황이 탄소 섬유 사이에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면적당 용량 (mAh/cm²)이 우수한 저중량, 고용량 리튬 황

배터리 소재 개발이 가능해진다.

리튬황 배터리는 자원이 풍부해 가격이 저렴한 황을 이용해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6배 이상 높다는 장점이 있다. 리튬황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코발트와 니켈 등 전극체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효율적인 가격으로 배터리를 생산 및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탄소나노섬유에 황이 맺히는 현상과 그로인한 전지의 안정적인 수명 특성

흑연 대비 에너지 용량 4배 늘리는 실리콘 산화규소 혼합물

양극재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음극재로는 흑연이 대부분 사용되지만, 국산화가 어렵고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장보윤 연구팀은 흑연 대신 산화규소(SiOx) 나노분말 제조기술과 노하우를 개발했다. 산화규소 나노분말에는 리튬과 반응성이 높은 실리콘(Si)이 포함되어 있다. 실리콘을 리튬이온 배터리에 적용하면 흑연 대비 에너지 용량을 4배 정도 높일

수 있다. 규소는 상압 조건에서 산화 반응을 제어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합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조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합성반응영역을 진공 상태와 흡사하게 만들어 상업 조건에서도 합성할 수 있다. 또한 제조 시 킬로그램 당 2~3달러 정도의 저가 규소원료를 사용하고 금속 분야에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유도용융장치를 사용해 유일하게 상용화 중인 일본 제품 대비 생산 단가를 30~50% 절감할 수 있다. 반응 시 가스를 순환시켜 재활용하고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해 100시간 이상 연속공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해당 기술은 내년 1월부터 양산이 시작돼 테슬라를 비롯한 세계각국 배터리 제조 업체 및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업체에 공급된다. **W**

DEEP



BOSS VS LEADER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리더
원익테라세미콘 김계현 팀장

생일 축하해요

당신의 기쁜 날, 가득히 축하드립니다
원익머트리얼즈 허광욱 과장

WONIK HERO

특출한 용기로 일군 남다른 용기 관리
원익머트리얼즈 김민철 과장

A WEEK 52H

사랑의 시간을 만들다
원익테라세미콘 홍봉기 부장

명단공개

원익인물사전
원익테라세미콘 김지나 과장 & 최성원 과장

원익월드

여기보다 어딘가에
원익머트리얼즈 고경현 과장 &
원익테라세미콘 장성민 과장

밤 한 번 먹어요

보증된 사람들의 의기투합

THE WAY

큰 목표로 같이 만들어 갑시다
원익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이사

특별한 덕후님

삶에 퍼지는 핑크빛 한 방울

맛있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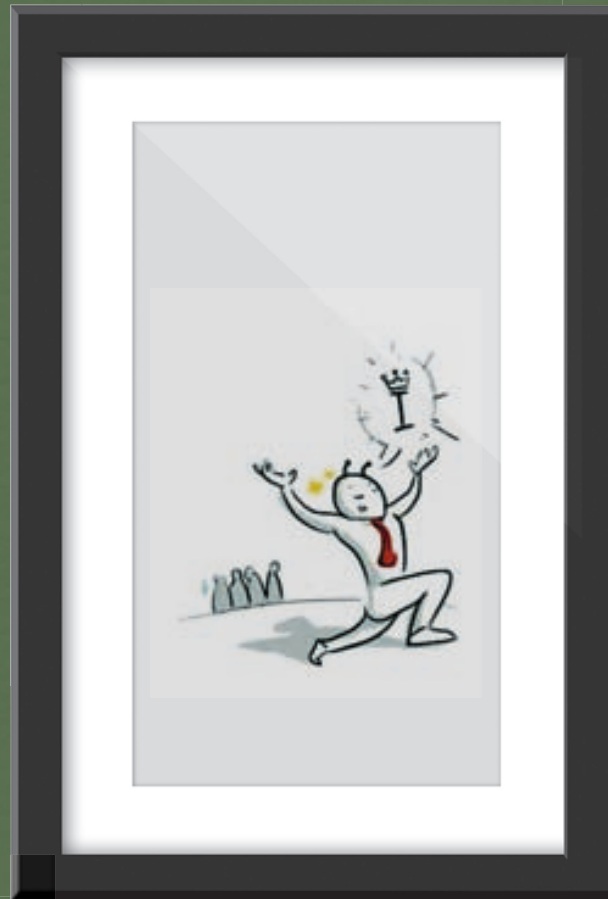
간식으로 파워 UP! 팀워크도 UP! UP!

명작예찬

세밀한 꽃의 화가, 김홍주

훌륭한 리더

내가 꿈꾸던 리더를 만났습니까?
현실 속 나는, 보스입니까? 리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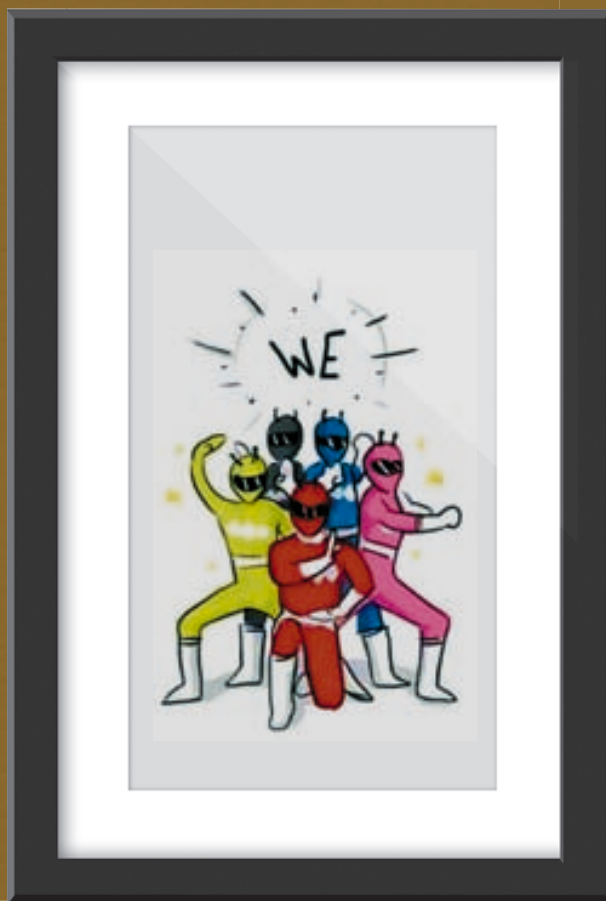
Boss

**보스는 혼자서
빛을 보려고 합니다.**



혼자서 빛을 보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을 밟고 밟으며
앞서 나갔을 것입니다.

함께하면 할 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팀이자
그 팀을 이끌어주는 것이 리더입니다.



Leader

**리더는 함께
빛을 보려고 합니다.**

S

HAPPINESS 19

L

원익테라세미콘 DS제어기술팀
팀장 김계현

No. 3

높은 자리에 앉아 팀원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내미는 상사의 시대는 끝났다. 본인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팀원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포용을 ‘하는’ 것이 아닌 포용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의 시대를 연다.



단단한 껍질 속 따뜻한 마음

태풍 솔릭이 한반도의 허리를 감싸던 날, 쏟아지는 폭우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던 김영현사원. 부산한 와중에 울리는 핸드폰을 보니 '김계현 팀장님'이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떨리는 손으로 컨 메신저에는 '태풍으로 인해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늦어도 괜찮으니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서 오세요.' 세상에. 이 비를 뚫고 출근할 생각에 앞이 깜깜했는데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겠다.

가까스로 회사에 도착해 업무를 하던 중, 팀장님에게서 면담 요청이 왔다. 오늘 잘못된 게 있나 돌아본다. 없는데. 그럼 어저는? 지난주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면담실에 들어가자, "오늘 출근하느라 힘들지 않았어?" 하며 온화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팀장님이 보인다. 그 후로도 팀장님은 일상적인 이야기와 건강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 하셨고 김영현 사원 역시 긴장이 풀어진 듯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면담을 끝낸 김영현 사원은 조금 아리송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려고 면담을...?' 그의 표정을 알아 채 권혁기 과장이 김영현 사원의 어깨를 툭툭 털어주며 답을 알려준다. "하하. 왜 이런 면담을 하나 싶지? 그게 다 너 컨디션 살펴보려고 그러시는 거야. 힘든 일은 없는지, 아프진 않은지 알아야 뭐든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김 사원은 그제야 의문이 풀린 듯 환하게 웃는다. 자리로 돌아가는 김사원의 뒷모습을 보며 권 과장은 그럴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2011년, 권과장이 김팀장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낀 인상 역시 '무섭다'였다. 마동석을 연상시키는 다부진 몸에 짧게 깎은 머리, 타석에 선 추신수가 공을 고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까지.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하고 긴장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신입사원이 많던 당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팀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 명 한 명을 불러다 면담을 하고 모난 원석들을 각자의 쓰임에 맞게 가공하는 그의 모습은 권과장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의외의 귀염성으로 '마블리'라는 애칭을 얻어 사랑받듯, 김계현 팀장 역시 첫인상과 상반되는 따뜻함으로 팀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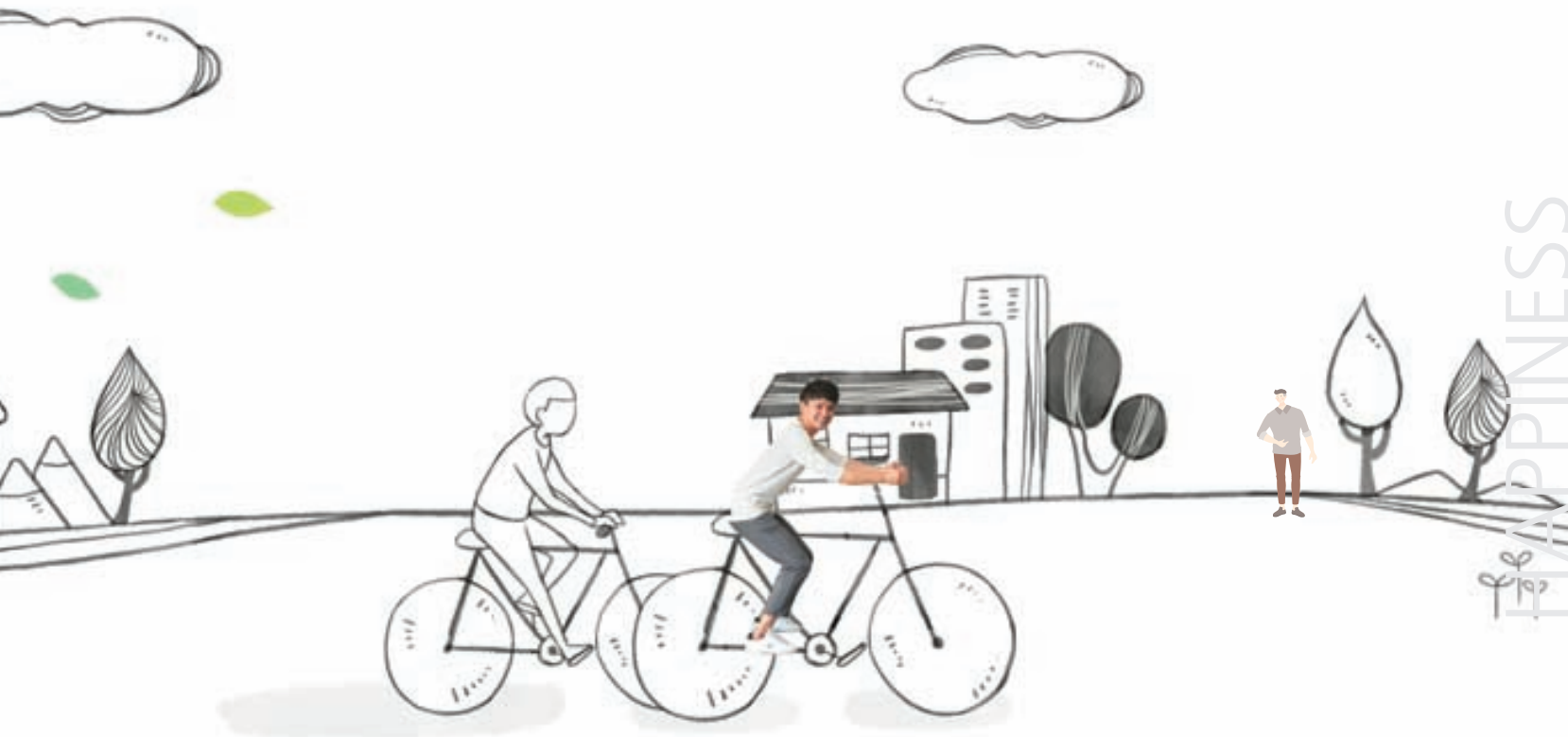
자유는 화합의 첫 단추

최성준 과장은 업무 외 시간에 김계현 팀장과 사이클을 탄다. “팀장님은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몸이 튼튼해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가정도 돌볼 수 있다고요.” 주말마다 짧으면 50km, 길면 100km의 강행군을 하면서도 지친 기색은 찾을 수 없고 누군가 뒤처지거나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멈춰서 자신의 일처럼 돌본다. 최과장은 김팀장이 업무 외에서까지도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에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진심이구나.’하고 깨달게 됐다. 그 진심은 타 부서에게까지도 전달된다. 얼마 전 보쌈 회식이 그렇다.

“보쌈집에 와서 보쌈만 먹으란 법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시켜 드세요.” 김 팀장의 말에 모두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외친다. “쟁반국수요!”, “막걸리 마실까요?” 설계파트와 제조파트의 합동 회식, 두 파트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지만 은근한 신경전이 있다. 제조파트에서 설계파트가 설계한 부분의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 당연한 업무이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마음이 상하기 마련. 김 팀장은 이로 인해 감정의 골이 생기지 않도록 두 파트 간 화합을 더 돈독히 하려 노력한다. 하나로 감싼다는 의미에서 보쌈만한 것이 있을까. 두 파트는 잔을 부딪히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먹으며 즐겁게 화합한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뜬다. 무슨 일일까? “어떤 회식이든 배가 부르면 집에 가도 된다. 여자 친

구와 데이트가 있으면 회식에 안 와도 된다. 개인의 사정이 무엇이든 억지로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된다. 김 팀장님의 철칙이예요. 강요는 절대 없어요.” 최 과장의 말에 옆에 있던 이재규 과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팀장님은 1차까지만 함께 하세요. 더 놀고 싶다면 사이클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하하 웃는다.

자신이 맡은 일은 100%의 완성도로 끝내고 팀원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도 타 부서와의 협력까지 이끌어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데 김계현 팀장은 그 어려운 걸 해 내기에 팀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Entertainer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재주꾼!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세요?

김영현 사원

Accept

팀장님의 포용력은 언제 봐도
놀라워요. 언젠가 저도 팀장님
같이 멋진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권혁기 과장

Touched

늘 앞선 배려로 팀원들을 살피는
감동 리더. 존경합니다 팀장님!

최성준 과장

Romantist

틈만 나면 사모님께 전화를
거는 로맨티스트. 일과 사랑
둘 다 꽉 잡고 계십니다.

이재규 과장



사람을 위해 리더

안녕하세요 DS제어기술팀 팀장 김계현입니다. 저는 2011년, 원익테라세미콘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좋은 리더로 추천을 받아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팀원들에게 고맙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사원시절 겪었던 상사의 안 좋은 모습은 하지 않으려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상사의 개인적인 감정이 팀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선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요, 특히 인사과에 관해서는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연시에 미리 조직원들과 합의를 합니다. 또 팀원들이 면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웃음)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상사께서 면담을 4시간씩 하던 분이었어요. 의견을 관철하겠다고 마음먹고 들어가서도 설득에 지쳐 돌아오곤 했죠. 저는 그분께 면담은 두려운 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과 설득은 시간이 아닌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철없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원익에 오기 전, 저는 '내가 제일 업무를 잘하고, 무슨 일이든 내가 관여해야 일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자만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원익으로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 덕에 제 기술력의 위치와 팀워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덕분에 업무에 있어서는 임파워먼트를 가장 중요시하게 됐는데, 상사에게 보

노력하는 사람,

고를 할 때 팀원들이 자신의 실적을 자랑할 수 있도록 팀원들에게 보고의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직접 의견을 이야기 하고 나면 함께 일하는 의미를 알게 될 테니까요.

또한, 타 부서와 협업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많이 만듭니다. 원익테라세미콘에서 출하하는 제품은 한 부서가 만들 수도 없으며, 한 부서라도 빠지면 원하는 품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전달하고자 다 함께 노력해야 하죠.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고 회사의 자원은 곧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직원들이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 1, 2회의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일했으면 하는 게 제가 직원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아, 꼭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아 몸도 마음도 건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한번쯤은 기억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웃음). 그래서 팀원들에게 업무의 방향을 넘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도 작든 크든 적절한 조언을

원익인에서 선정된 세번째 리더



해 주려 노력하는데 혹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저를 좋은 리더로 추천해 준 것을 보면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하하.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팀을 아우르는 리더가 된다.

생일 축하해요

당신의 기쁜날

This is your space, an oasis w
take your time ;



가문의 으뜸이시니
꼭 축하드립니다



'삐익 뵙-' 주의 신호음과 함께 가스 용기가
그득한 트럭들이 드나드는 이곳은
원익머트리얼즈 오창사업장의 용기관리파트.
평소와 같이 긴장된 작업의 연속이지만
오늘은 묘하게 분위기가 들떠 있는 듯하다.
오후 두 시가 지날 무렵,
사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지금? 어디서?' 입모양으로 속닥이며
몰래 눈빛을 주고받는 이들의 모습이
소년 같기만 하다.

무뚝뚝한 어색함도 잠시,
마음은 케이크처럼 부드러운
남자들의 서프라이즈!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생일 축하합니다!

원익머트리얼즈 SCM팀

허광욱 과장

Birthday 1981. 9. 10

Happy



축하받는 사람도,
축하하는 사람도
모두 행복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



저희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다행이에요.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허광욱 과장님!



“고맙다 후배들아, 회식 하자!
메뉴는 고기로!”



Birth Party

원익 머트리얼즈의 주춧돌
용기관리파트. 그들의
단단한 팀워크는 신뢰와
건강한 관계에서 만들어졌다.

9월 10일, 오늘은 입사 11년 차 오창 사업장의 분위기 메이커 허광욱 과장의 생일. 평소 화려한 입담과 다정한 마음씨로 선, 후배들을 감싸 온 그의 생일을 맞아 동료들이 서프라이즈 생일파티를 기획한 것. 하지만 끝없이 밀려드는 회수용기 탓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웠다면 나비효과처럼 회수용기 정리, 충전, 출하 모든 단계가 늦어지기 때문.

겨우 겨우 짬을 낸 송인옥 사원 외 4명이 모여 케이크와 고깔모자를 세팅하고 편지 대신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메시지를 적었다. 초졸하지만 하나둘씩 마음을 모아 만든 생일파티. 바쁜 사람들 중 가장 바쁜 그를 어떻게 식당까지 데려 올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다.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하면 진짜 놀라시겠죠?”, “누가 오셨다고 할까요?”, “너무 심한 건 하지 말자 키크!”

토끼 눈이 된 허광욱 과장이 혈레벌떡 식당으로 들어왔다. “누가 날 찾는데?” 그곳에는 촛불이 일렁이는 케이크를 들고 있는 송인옥 사원이 있었다. “아~ 뭐야 진짜 아!” 허 과장은 송 사원을 보곤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도 기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축하 노래가 끝나고 촛불을 끄자 성용범 사원이 작은 봉투를 전달했다. 십사일반으로 모은 작은 선물이었다. 허 과장은 “진짜? 진짜로 선물까지 준다고?” 하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보통 같이 일하는 동료의 생일이라고 하더라도 다 함께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말만으로 지나치기 일쑤였다고 한다. 바쁜 와중에 본인을 위해 준비해 준 후배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밀려든 듯했다.

서프라이즈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허 과장을 화이트보드로 이끌었다. 장문의 편지도, 눌러쓴 예쁜 글씨도 아니었지만 ‘축하합니

다.’, ‘과장님 최고!’,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허 과장은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괜히 머쓱해하며 “맛있는 거 사달라고 쓴 사람 누구야!”하고 어색한 연기 뒤에 “조만간 내가 쓸게.(웃음)”하며 감사를 대신했다.

허 과장은 사원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누며, 이야기마다 직원들과 업무에 대한 애정이 묻어 나왔다. “사실, 이 업무가 설거지와 비슷해요. 음식을 담기 전 청결한 접시가 기본이듯, 저희가 관리하는 용기도 가스를 담고 출하됐다가 용기에 있는 가스가 사용되고 나면 회수돼요. 그 용기를 정리하는 게 저희 파트의 몫이죠. 원익머트리얼즈의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깨끗한 접시가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듯, 준비된 용기가 있어야 제품을 출하하고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엄광혁 사원이 “역시 말씀이 기가 막히게 하신다니까.”하고 박수를 친다. “평소에도 설명을 이렇게 재밌게 잘해주세요.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귀찮음도 없고 본인 일인 것처럼 상세하게 알려주시죠. 여유가 있을 땐 그 문제에서 나아가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게끔 이끄시죠.” 이에 질 수 없다는 듯 송인옥 사원이 “저희 허광욱 과장님은 원익머트리얼즈에 없어서 안 될 사람입니다!”하고 외치자, 모두 웃음이 터진다. “이 녀석들 도대체 뭐가 먹고 싶은 거야?”, “제가 평소에 장난도 많이 치고 뭔가 설명할 때도 일부러 익살맞게 하려고 해요. 후배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것도 있고 일을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해서요. 모두 잘 따라와 주고 이렇게 생일파티까지 해 주는 걸 보면 제가 잘 하고 있나 봅니다. 하하.”

바쁜 업무 탓에 금방 자리를 정리해야 했지만 감동만큼은 진하게 남았다. 서로를 위한 마음 앞으로는 변치않길 바래본다. **W**

특출한 용기(勇氣)로 일군

‘남다른 용기(容器) 관리’

김민철 과장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동기화하여 용기 구입비용 절감, 수출입 컨테이너 2단 하역 실현, 용기 외관 체크, 스킴 바퀴 개선품 개발 등 다각적인 용기 관리 개선 및 혁신 활동을 통해 2017 원익인상 관리혁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SCM팀은 원자재 공급·가스 생산·유통·납품 등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를 위해 25명의 팀원들이 물류파트와 용기관리파트로 나뉘어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 용기관리파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가스 품목별·용량별로 구분된 20여 가지의 용기를 사용하는데요. 0.44리터를 담는 작은 용기부터 대형 트럭이 끄는 18.1톤짜리 용기에 이르기까지, 2만 5천여 개의 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되는 여러 품목의 가스는 바로 이 특수 용기들에 담겨 고객사에 납품되는데요. 우리 파트는 이 같은 용기들이 고객사를 거쳐 무사히 회수되고 다시 가스를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밸브·스키드 등 용기에 따라붙는 부자재도 저희가 관리하고, 부족한 용기를 추가 구매하기도 합니다. 한편 저희가 운용

하는 용기에 가스가 담기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각 용기별로 유관기관의 정기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도 저희가 나섭니다. 즉, 저와 우리 파트는 용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원익인상 수상 소식을 듣자마자 ‘이 영광을 팀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팀원들을 믿고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가능성의 장’을 열어주신 김갑주 팀장님과 함께 땀 흘린 25명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특히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준 용기관리파트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합

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물심양면 도와주지 않았다면 원익인상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변과 함께 나누고픈 원익인상의 영광



“한 번 해 보자!” 기회와 맞닥뜨렸을 때, 망설임 대신 용기를 택했다. 회사와 팀원들이 만들어 준 ‘도전하는 분위기’ 덕분. 그리고 결국 ‘남다른 용기(容器) 관리’라는 성과와 2017년도 원익인상 관리혁신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일궈 냈다. 원익머트리얼즈 SCM팀 김민철 과장의 이야기다.



■
**김 과장의 경쟁력,
‘끝없는 혁신 활동’**

부족한 제가 영광스럽게도 원의
인상을 받게 된 배경에는, 재작
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 용기
관리 개선·혁신 활동이 있지 않
을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

르는 일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면밀하게 동기화하여 용기
구입비용을 절감했던 기억입니다. 우리 회사는 2017년 12월
현재 54개 업체, 111개 라인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고
객사마다 필요로 하는 가스와 양이 제각각인 데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저희는 이에 맞춰 보유하고 있
는 용기를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하죠. 어떤 용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구매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용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용기 재검사 시 용도 변
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의 수요가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되면 암모니아 용기를 재검사하면서 이산화탄소 용
기로 용도 변경을 하는 식이죠.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작년 한 해
용기 구입비용을 19억 4천만 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 2단 하역을 실현시킨 것도 좋은 기억 중 하나
입니다. 우리 회사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도 가
스를 납품하는데요. 전에는 위험성 때문에 용기들을 바닥에 한
단만 깔아서 운송했습니다. 그런데 운송 효율을 높이려고 고
민하다 보니 안전 구조물을 설치해서 2단 적재하면 좋을 것 같
더군요. 그래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의 긴밀한 협업 끝에
2015년 말, 가스 업계 세계 최초로 2단 적재 운송 승인을 받아
납품 중입니다. 그간 5억 원가량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뒀죠.
여기에 더해 용기 외관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가스 품질 이외
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모
든 업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써서 종종 문제를 일으
키던 스킨드 바퀴를 구조적으로 개선한 점이 고객사의 만족도
를 높이고 관리 효율을 증대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 것 같
습니다.



**사업장 용기를 통합 관리하는 회수용기 저장소 착공,
중국 시안 삼성전자 2기 공장 물류 소화를 위한 제발
시설 및 시스템 구축. 원익머트리얼즈 SCM팀의 현안
이다. 김민철 과장은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팀원들과 유기적으로 손발을 맞출 계획이다.**

모든 도전에는 부담감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전을 통해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SCM 팀 특유의 열정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 보니, 팀원들 모두 한결 긴장을 놓고 도전에 임합니다. 누군가는 “그걸 왜 해? 언제!”라고 할 때, 저희들은 “할 수 있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모두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발 벗고 나섭니다. 이 같은 기류가 팀 내에 두루 퍼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공률이 높아지고 팀워크도 좋아집니다. 저희 팀원들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지 않습니다. 팀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조언을 구하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린 소통과 활발한 브레인스토밍은 필시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2017년 1월 말 양

■
**팀워크는 모든
업무의 화룡점정**
■

청 사업장에 들어선 물류센터가 좋은 예입니다. 그간 우리 회사는 독립된 물류센터가 없었습니다. 각 사업장 한편에서 물류 처리 작업을 진행해 왔죠. 사실 그간에는 물류 업무가 단순한 납품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고객사와의 접점에 물류 업무가 위치하고 있는 만큼 용기의 이동과 회수, 납품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죠. 이에 따라 우리 회사도 독립적인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처음 진행하는 업무다 보니 모든 공정을 세팅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수록 서로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기 위해 공을 들였고, 무사히 물류센터를 준공했죠.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저도 관리자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현재 용기관리파트를 맡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조직을 이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팀원 개개인이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도 각각의 능력에 맞게 업무 분장이 잘 나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조직, 이게 제가 꿈꾸는 직장 공동체입니다.

현재 SCM팀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 군데 사업장의 용기들을 통합 관리하는 회사 용기저장소 착공에 들어갈 예정

■
**회사와 함께 열어갈
‘보다 나은 미래’**
■

입니다. 2019년 준공 예정인 중국 시안 삼성전자 2기 공장에 대한 물류를 소화하기 위한 제반시설과 시스템 구축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면한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또 다른 숙제가 눈앞에 닥치겠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팀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2017년도 원익인상 관리혁신 부문 수상은 제가 했지만, 이 상은 저만의 것이 아닌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일하는 모든 동료들, 더 나아가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원익 머트리얼즈에게 이 공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것처럼, 저도 더욱더 빛날 원익 머트리얼즈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

THE 2017 WONIK PRIZE

대상 이승호 부장 테라세미콘	기술개발 부문상 공철민 부장 외 10명 원익아이피에스
생산부문상 최광업 부장 원익아이피에스	영업 마케팅 임현옥 부장 외 3명 원익테라세미콘

주

52

시간 근무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올해의 이슈로 꼽히는 이 말들의 배경은 자신과 주변을 사랑하고픈 마음일 것이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며 얻은 것은 저녁의 여유뿐 아니라 가족을, 친구를, 반려동물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사랑의 시간을 만든다

WORK &
LIFE VALANCE

원익테라세미콘 CS2팀
홍봉기 부장의 화목한 가족

2004년 7월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로 일주일에 하루뿐이었던 휴일이 이틀로 늘었다. 주말이 생긴 가족들은 피곤에 절어 소파에 눕는 대신 여가를 즐길 수 있었고, 하루의 휴가를 더해 가까운 해외나 국내로 여행도 갈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주중은 어땠을까? 반복되는 야근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식사는 하늘에 별 따기, 여전히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집에 도착해 “다녀오셨어요.”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날이 태반이었다. 하지만 올해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저녁 있는 삶이 열렸다. 기존 68시간 근무(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16시간 줄어든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변경된 것. 기업의 재량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노사 간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근무는 불가능하다. 주 5일제를 넘어 주 52시간 근무제로 전 국민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갖춰지고, 줄어든 주 16시간 동안 일 대신 소중한 이들과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저녁이 있는 원익인
원익과 삶의 형을 맞추다

원익테라세미콘 CS2팀
홍봉기 부장의
저녁이 있는 라이프



홍 부장 가족은 TV를 켜는 대신 거실 한가운데에 보드게임판을 펼친다. 각자 보고 싶은 걸 보겠다며 리모컨 쟁탈전을 하기보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 하는 편. 덕분에 대화가 늘어 중학교 1학년인 딸 수민양도,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석조군도 또래보다 무난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 익숙한 듯 가족만의 룰이 정해진 게임은 생각보다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다. 팀을 나누지 않고 각각 주사위를 던지며 은근한 신경전을 벌인다. “여기 제가 먼저 판 구역이에요!”, “돈은 정확히 나눠주세요.” 가족끼리 하는 게임이지만 봐주기는 없다.

원익테라세미콘 CS2팀의 홍봉기 부장에게도 주 52시간 근무제는 폭염에 대비와 같은 희소식이였다. 자상한 면모로 가정을 가장 먼저 챙기던 그였기에 밤늦은 시간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씻고 잠자리에 들던 날이면 유독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덕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게 된 것. 오늘도 정시에 퇴근한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나섰다. 캄캄하지 않은, 아직 노란 해가 떠 있는 하늘이 반갑다. 용인에 위치한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 40분. 네 가족 모두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후 엄마가 직접 담근 자몽청, 레몬청으로 만든 에이드를 마신다. 누구보다 가족의 입맛을 잘 아는 엄마가 모두의 입맛에 딱 맞게 만들어 너무 시지 않고 새콤달콤하다.



35
HAPPINESS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규칙을 반듯하게 지키며 진행된 게임은 엄마의 승리로 점점 기울고 “엄마가 땀어! 수민이 파산이야!”라는 외마디로 마무리되었다. 시무룩한 것도 잠시, 해가 저물기 시작하며 날씨가 선선해지자 아들 석조군은 “아빠, 우리 나가서 캐치볼해요” 하며 흥 부장을 이끈다. 가족은 글로브를 챙겨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운동장으로 향한다.

도란도란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나누며 걷던 중, 석조군이 “아빠, 저번에 얘기했던 낚시 카페 언제 갈 거예요? 아빠를 데려가야 적립금이 두 배란 말이예요. 아빠가 큰 물고기를 잡아 주시면 인형도 받을 수 있어요.”하고 흥 부장을 채근한다. “에이, 근데 석조야 그거 알아? 그 인형들 다 납품으로 저렴하게 가져오는 거야.” 은근슬쩍 말을 돌리는 아빠의 모습이 여느 아빠와 다를 바 없어 웃음이 새어나온다. 그래도 조만간 같이 가자며 아들을 달래는 광경이 정답다.

운동장에 도착한 흥 부장 가족. 아빠와 아들은 캐치볼을 시작하고 엄마와 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대화를 나눈다. 공이 허공을 가로질러 팡!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글러브에 안착한다. 어느새 커서 아빠의 손이 얼얼할 만큼 세계 공을 던지는 아들이 대견하다. “전

에는 새벽에 퇴근해서 애들 얼굴을 못 보는 일이 많았어요. 지금은 일찍 퇴근해도 애들이 학원 다니느라 바쁘지만(웃음)”엄마의 말에 딸 수민양이 “그래도 아빠, 주말에는 스파게티도 해 주시고 볶음밥도 엄마보다 맛있게 해 주셨어요.”하고 슬쩍 아빠를 대변한다. “그래, 수민아 아빠가 참 자상하시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나서 너무 좋다.” 흥 부장네 가족 외에도 많은 가족들이 나와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도 한다. 날이 한결 풀려서이기도 하지만 작년엔 비해 단지 운동장에 사람이 꽤 늘었다고 한다. 저녁을 먹고 난 시간이면 얼른 나와 놀 자리를 맡아줘야 할 정도라고.

해가 완전히 저물고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자, 시원해진 날씨 탓인지 때늦은 모기가 기승을 부린다. “엄마, 나 여기 모기 물렸나 봐요.” 수민양이 불멘소리로 팔을 내밀고 캐치볼을 마친 부자가 “이제 그만 들어가자”며 다가왔다. 한 시간 전 노을을 등지고 걸어왔던 산책로를 이제 가로등불빛을 받으며 돌아간다. 노곤해진 가족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즐거웠던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낚시 카페는 언제 갈 것인지, 다음 주말 아빠의 특식은 무엇일지 기대하며 잠이 들 것이다. **W**



오늘도
망했네...
내일은 이기리라

게임을
이렇게 잘하면
반칙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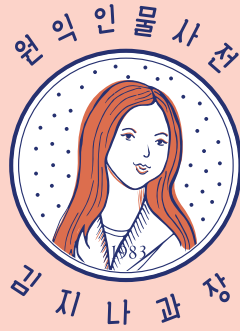
저녁이 오면
삶



저녁이 주어지는 소확행, 사랑이 채워지는 가족



차곡차곡 찬찬히 쌓여 우리의 영감이 될 것이기에



업무 원익 테라세미콘 DS공정 P에서 근무 중
혈액형 A형이고 별자리나 탄생석? 관심 없다.
이름 풀이 뜻 지, 잡을 나로 뜻을 잡는다 즉, 원하는 뜻을 이룬다.



- 지금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무엇인가요?** ① (욕인데;; 써도 돼요?? ㅎㅎ) 나 보고서 언제 씬??
- 자신의 SNS에 가장 많이 게재된 사진?** ② 강아지 사진 (털 알레르기가 있어 키우지는 못하지만 몹시 좋아함)
- 퇴근 후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③ 당연히 수면?? 잠들기 전까지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청소/스트레칭/책 읽기 정도
- 가장 좋아하는 점심메뉴?** ④ 본사 식당에서 나오는 밥이 맛있어서 다 좋아합니다.
- 가장 싫어하는 인간 유형은?** ⑤ 반성이 없는 인간
- 다음 생이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⑥ 돈걱정 없는 팔자로 태어나서 강철 체력으로 여행 다니고 싶다.
- 자기 전 무서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시나요?** ⑦ 지금 안 자면 내일 못 버틴다 or 귀신이 무서울까 사이코패스가 무서울까 고민함
- 나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⑧ 정리된 내 집에서 적절한 온, 습도에 공복이 아닌 상태로 시원한 커피와 함께 책 읽을 때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ㅎㅎ)
-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는 언제인가요?** ⑨ 어렸을 때 봄날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과 도시락 싸서 전주동물원 놀러 갔을 때, 겨울밤에 안방에서 부모님과 같이 야식 먹으면서 사극(연속극이었던가..) 봤을 때, 뭐 이거 저거 안되면 사고 나기 전으로라도 ㅎㅎ
- 로또에 당첨된다면?** ⑩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가족들 편안하게 하고, 남은 돈으로 선진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
-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⑫ 매일이 도전인데 또 도전인가요..ㅎ 월급을 얼마까지 아낄 수 있는지 도전 중입니다.
- 슬플 때는 무엇을 하시나요?** ⑬ 감정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라 슬플 때 눈물을 잘 흘리 지를 못하고 감정 요동치는?! 느낌이 싫어서 우울하다 싶으면 일단 한 숨 잡니다 짧게라도..
-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⑭ 글썩요;; ㅎㅎ 없습니다 기억하다 보면 미안하거나 안쓰러운 마음은 있어도 후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 최근 본 책** ⑮ 심플한 정리법(도미닉 로로) 재독 해도 참 좋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⑯ 가깝게는 조만간 출장이 잡혀있고 올 겨울부터 결혼 준비하기 시작해서 내년 6월경 결혼할 예정입니다.
-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 ⑰ 많이 많이 보고 싶소..
-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사람** ⑱ 세명 넘어요 ㅎㅎ 부모님, 남자 친구, 친구



9

나이 1977년 11월 30일생으로 X세대
업무 원익 테라세미콘 CS1팀에서 근무 중
혈액형 B형(혈액형 성격이 잘 맞음. 자유분방 + 지겨운 것을 참지 못함)
이름 풀이 이름은 개명을 한 것으로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 가차 타고 설악산을 갔다고 하여 '최기설'이었으며 아무 뜻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 작명과 오행을 스스로 공부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뜻은 없고, 생년월일과 오행에 맞춰서 지었습니다.

- | | | |
|---------------------------|---|---|
| 지금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무엇인가요? | ① | 빨리 일 끝내고 집에 가서 책 보고 싶다. |
| 자신의 SNS에 가장 많이 게재된 사진? | ② | 건담 프라모델 |
| 퇴근 후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 ③ | 와이프랑 수다 떨기(서로 회사에서 있었던 일, 뒷담화 등) 판타지 소설 읽기 2달 전부터 시작한 운동 |
| 가장 좋아하는 점심메뉴? | ④ | 일본 라멘(근무지 근처 유명 라멘집(멘야 마쯔리)으로 부서 사람들에게 반응 곳 |
| 가장 싫어하는 인간 유형은? | ⑤ | 있는 데 있는 척하는 사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 |
| 다음 생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 ⑥ | 지금 이대로 다시 한번(키가 조금만 더 크고, 머리숱 많고, 피부 좀 뽀얗고, 얼굴 좀 잘 생겨져서 아주 조금만 더) |
| 자기 전 무서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시나요? | ⑦ | 경험 없음. 자고자 맘먹으면 30초 안에 잠드는 성격 |
| 나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 ⑧ | 냉장고에 있는 걸로 생각나는 대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와이프가 좋아할 때 |
|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는 언제인가요? | ⑨ | 고등학생 - 더 제대로 놀고 싶다 어설프게 놀았음. |
| 로또에 당첨된다면? | ⑩ |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기. 내가 인테리어 해서 전원주택 짓기 |
|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 ⑪ | 패러글라이딩(고소 공포증이 심해서.. 50살이 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음.) |
| 슬플 때는 무엇을 하시나요? | ⑫ | 맥주 한 캔을 원샷하면 바로 잠이 듬. (술을 못 마셔서 맥주 한 캔이 수면제) |
|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 ⑬ | 젊었을 때 혼자서 해외여행 한번 못해본 것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들이 당시에는 왜 그리 어렵게 생각했는지. |
| 최근 본 영화또는 책? | ⑭ | 영화- 공조(집에 가고 싶었음. 생각나는 게 없음. 황정민이 주연이란 것만...)
책- 미생(과장된 내용도 많지만 공감되는 내용이 더 많은 것 같다.
학생은 삼국지, 직장인은 미생을 추천) |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 ⑮ | 특별한 계획은 없다.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이 안정되면, 미래도 안정된다고 생각함. 꿈만 꾸는 건 성격에 안 맞음(여행 갈 기회나 많았으면...) |
|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 | ⑯ |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용돈 가끔 드리면서요)
(제가 잘 살고 행복해야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생각합니다.) |
|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사람 | ⑰ | 와이프, 집사람, 아내(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울메이트) |



여기보다 6-12인가사에

일상과 일탈의 가운데 - 배낭 여행

원익의 해외 배낭여행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상에서의 변화와 리프레쉬를 절감할 때가 아닐까? 여기 원익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해외 배낭여행 프로그램이 있다. 매년 우수 직원 30명을 선발하여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 자유롭게 떠나보는 기회를 경험한 이들의 호기로운 일탈 속으로 떠나보자!

고경현 과장

원익머트리얼즈

SCM팀

파트장

39세



자프리섬 전경은
가슴이 뻥 뚫려요!

사람은 그렇게 한 걸음 씩 배워나간다

-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10년을 근무하면서 의욕 저하, 스트레스, 성취감 감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혼란스러움을 느끼던 때, '배낭여행 인원 선발'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 참여해서 업무 스트레스, 회의감 등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겉으로는 표현을 많이 못하였지만 독려해주신 팀장님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업무에 지친 제 모습을 보시고 전환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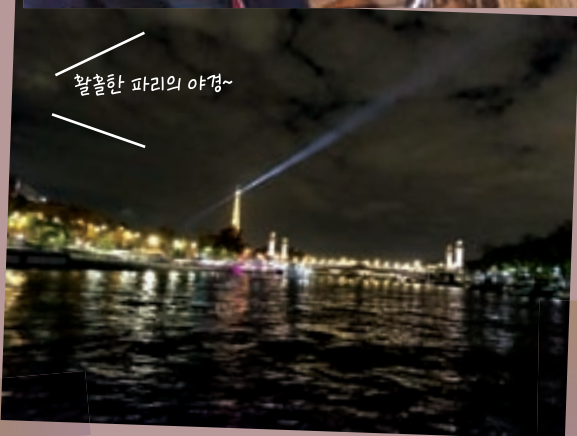
베니스에서 한껏



런던은 어디서던~



베르사유 궁전은 그야말로
눈부심 그 자체~



활활한 파리의 야경~

-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에피소드 좀 들려주세요.

스위스 융프라우 가는 날 눈바람 소식이 있어서 정상에서 맑은 하늘과 경관을 못 볼 거 같아 아쉬웠지만, 그래도 스위스 호텔에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한테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고 스위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화덕피자와 맥주 그리고 스테이크를 사주시더라고요. 물론 음식 먹으면서 여행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여행 친구가 생겨 너무 좋았습니다. 정상에서는 신라면을 먹어야 한다고 선포 또 사주시더라고요. 여기도 한국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소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한번 쳐다봤는데... 종이컵에 소주 한잔 따라주시더라고요. 야! 이분들 술까지 가지고 오시고 정말 대단... 3000m에서 마시는 소주와 라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행에서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에서 다시 만났어요. 플로리안 카페 가신다고 하길래 같이 동행 여기에서는 트라미슈와 카사노바가 먹었다는 민트초코를 마셔야 한다고 하네요. 1720년부터 있던 카페라는데... 궁전 같은 내부와 세월이 느껴지는 물품들이 많더라고요. 참고로 스위스에서 만난 분들은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낭여행으로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 자신감과 상황 대처 능력이 좋아진 거 같아요.
두 번째,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더 넓은 세상에서 느끼고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죠.
세 번째, 한 번쯤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고 자신에 충분한 투자를 하자!
네 번째, 무엇보다 가장 좋은 영향은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생각의 차이를 바꿔보니 다른 세상이 보이더군요. 어떤 일이든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충분한 생각(Idea) 후 업무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른 사우에게 알려줄 배낭여행 팁이 있다면

첫 번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행 계획을 세우자.
두 번째, 유명한 곳도 좋지만 가끔은 조용한 곳도 나름 멋(낭만)은 있다.
세 번째, 필요한 물품만 정확히 챙겨가자.
네 번째, 인터넷 정보를 너무 믿지 말자.
다섯 번째, 셀카 자신이 없다면 1명 동반하자(유럽 방값은 두 명이 이득)
여섯 번째, 너무 많은 루트를 잡지 말고 한 곳에서 충분히 즐기자.
일곱 번째, 인생 샷은 꼭 남기자.



또 보러올게~!

장성민 과장

원익테라세미콘
 DS공정팀
 과장
 39세

AUSTRALIA

-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회사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탄생의 울음보를 터뜨리던 날이 었그제 같은 딸이 벌써 4살이 되었다군요. 그래서 저만을 위한 보상이 아닌 그동안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준 가족들에게 해외여행이라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에피소드 좀 들려주세요.

9시간의 밤 비행 후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 새벽 6시경 도착했는데 아이의 첫마디는 "집에 가자." 피로가 썩악 밀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여행 다니며 있었던 소소하면서 특별하지 않은 모든 시간들이 첫날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광활한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에서 야밤에 돛자리 깔아놓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시간들.. 아이는 모래사장을 뛰어다니고 와이프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고, 저는 '달이 안 떴네' 하면서 모래사장을 거닐었던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쉽지 않은 기회를 얻게 되어 평소에 가기 힘든 곳으로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을 고려했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라 시차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껏 멀리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시차가 1시간밖에 안 나면서 평소에 꼭 가보고 싶었던 호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투자,
여행에서 시작하라.

배낭여행을 다녀온 것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영어권 국가에 가면 영어능력증이 발동됐었는데 너무 잘하려 하지 않으니 의사소통도 더 잘되고 현지인들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잘하려 하지 않으니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고 싶은 경험을 했어요. 회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잠시 내려놓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배낭여행을 다녀오신 소감을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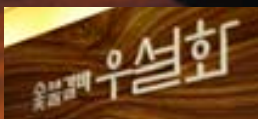
첫째로, 애사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녀온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여행지에서의 느낌이 생생하고 4살 딸아이라도 틈나면 다시 가지고 할 정도입니다. 항상 맑고 쾌적한 날씨에 캥거루, 코알라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W**

밥 한 번 먹어요

보증된 ◇◇◇◇◇ 사람들의 의기투합

◇◇◇◇◇
우설화 오산시청점
소갈비, 한정식 전문점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290, 2층
031-8058-3581





그 누구보다 '보증'이 확실한' 네 남자가 모였다.
자타공인 품질 외길을 걸어온 원익의 베테랑, 품질보증팀
사우들이다. 계열사에 따라 품질보증팀, 품질관리팀, 품질팀 등
소속된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맡은 업무는 모두 하나다.
바로, 원익의 제품이 고객에게 나가기 전 최전선에서 원익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일이다.

원익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김형진(원익홀딩스 품질관리팀 과장) 입사 12년차

드디어 만나 뵙게 되었네요! 2006년 입사 이래 품질보증 업무를 맡아오면서 예전부터 이렇게 계열사 품질보증팀 분들과 한데 모일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품어왔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김태운 (원익아이피에스 품질보증팀 상무) 입사 3년차

제가 2015년에 원익아이피에스에 왔으니,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네요. 진작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 했는데 이렇게 모이니 반갑습니다. 품질보증의 길을 걸은 지 25년이 되어가지만 이렇게 다른 계열사의 품질보증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진우 (원익머트리얼즈 품질팀 과장) 입사 12년차
 상무님 말씀을 들으니 시작부터 오늘 나눌 대화가 기대됩니다.
 저 또한, 2006년 입사 이후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요.
 여러분들께선 우리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품질보증'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항상준 (원익테라세미콘 품질보증팀 과장) 입사 7년차
 안녕하세요. 2011년에 입사했으니 제가 품질보증팀 멤버 중 막내네요.
 하하. 조심스레 말씀드려보자면,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보증하는 활동이지 않을까요.
 이 과정에서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의 과정까지도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객관화하여 매뉴얼로 만들고,
 이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품질보증, 원익의 자긍심으로

김태운 저는 이런 관점으로 품질보증 활동을 바라 보기도 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불합리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PI,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생산 파트의 최전선에서 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 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서가 나서서 중심을 잡고 객관적으로 PI 활동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불합리를 발견하고, 이의 개선점을 문서화해서 룰을 만들고, 정착을 시키는 일이죠. 현장에서 이를 체질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 과정에서 새로 불합리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품질보증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원익머트리얼즈의 경우 특수가스 등 소재를 취급하기에 제품군이 다양하고 일일 출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기계보다 사람이 의존하는 부분이 커요. 5년쯤 전부터 품질강화를 위해 작업자들이 표준절차 규칙을 준수하는지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1~2년 동안은 작업자들이 어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계속 적용을 하고 보니, 인력의 공백으로 우왕좌왕하는 일이 줄어들고 효율성이 개선되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제조 파트에서 불량률이 올라간다면 개선점을 알아봐달라고 요청이 와요.

품질보증인을 위해 고함

황상준 원익테라세미콘의 경우, 여러 부품을 조립하여 장비를 생산하기에 협력사에 의존하는 부분이 큽니다. 이런 부분은 시찰을 나가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해야하는데 솔직히 협력사의 반발이 있죠. 그렇지만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꼭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원칙대로 수행하려고 합니다.

김태운 맞아요. 장비업체에게는 공통적인 애로점이죠. 부품들은 협력사에서 나오는 제품이기에,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산관리, 품질관리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진 모두 원익의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품질보증인'으로서 외길을 걷고 계신데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지켜가고 계시는지요.

황상준 저는 주요 업무로 출하검사를 담당하는데요. 업무 메일에 이런 코멘트를 달아놓습니다. '원칙을 지키자' 이게 참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지켜가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 하느냐. 한번 넘어가 달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정말 안되거든요. 오히려 처음부터 원칙대로 진행하면 상대방도 수긍해주세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형진 사실 이처럼 원칙을 지켜 일한다는 것이 편하고 쉬운 일만은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품질보증 업무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기에 스트레스라든지 소통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태운 네. 특히 우리 제품을 보고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품질보증 활동이잖아요. 문제점을 발견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정착시키는 동안, 새로운 불합리를 찾아 나서고, 탐험가적인 면모가 있달까요. 이를 통해 생산 시스템이 정착되고,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니 '이 제품 내가 만든거야'하는 자부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황상준 직접적인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다지는 일의기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우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품질보증인으로서 자긍심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제품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알아

야 이상 발견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보증인이라면 오리지널 엔지니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사로 인도되는 제품의 품질이 원익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니까요.

김형진 생산파트는 물론 기술파트도 망라해서 알아야 하기에, 만능엔터테이너 같은 엔지니어, 품질보증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나가야겠습니다.

김형진 어느덧 밤이 깊어 가는데요. 예전부터 바라왔던 자리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계열사마다 업무와 특성이 다르지만, 품질보증팀이 추구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품질보증을 통해 회사의 신뢰를 쌓는 일련의 활동이요. 그래서 더욱 각 계열사에서 어떤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가지고 업무를 실행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 많은 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벤치마킹하고 업무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운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품질보증 업무가 문제에서 불합리를 발굴해내는 일이다 보니,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특히 이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열사별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서로 바쁘다 보니 추진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만나 뵈고 보니 정말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김형진 이번 기회에 지금 여러분을 원년멤버로 모임을 결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김태운 제가 내년에 재계약이 된다면 증점추진목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하하. 아시다시피 제가 계약직입니다. 하하하.

이진우 이 내용이 사보에 꼭 나가야겠는데요. 이 모임을 위해서라도요.

황상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원익의 모든 품질보증팀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김태운 기존의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 재정립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품질보증만 28년째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라는 것을 체감하거든요. 그럼에도 품질은 원익의 대표,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 끝에는 분명 달콤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W**



다함께 품질보증팀, 원익인 모두 파이팅입니다!

제법 시원한 바람이 스치던 가을날 저녁,
평소 서로에게 궁금했던 점,
그리고 새로이 업무의 솔루션을 익혀가는 사람들.
길고 진득했던 무더위를 보내고 맞이한
한줄기의 가을바람처럼,
서로에게 힐링이 되는 순간이 되었길 바라본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하나로 의기투합한 네 사람.
이들이 있기에 원익의 미래는 보증된 것이 아닐까.





LEE
JAE
KYUNG

큰 목표로 같이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원익테라세미콘의 이재경입니다. 2014년에 이곳에 왔으니 원익인이 된 지 벌써 4년째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웃음). 그 동안 반도체 회사로서의 존재감만 가지고 있었던 원익테라세미콘이 시장의 차세대 주자로 성장하는데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난 4년간 많은 설비도 개발해 왔고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일만 남았는데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성장세였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투자가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업무 형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생겼죠. 하지만 저희는 이

어려움을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보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개발에 전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익인들 개개인의 실력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역량을 모아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저는 어릴 적 장래희망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 모두가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죠. 성장하면서 장래희망은 조금씩 바뀌어 현재에 이르렀지만 '모두 함께 성장한다.'라는 바람은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 직장이었던 삼성전자에 있을 때의 일이 생각나네요. 임원이 되어 처음 맡은 부서가 개개인의 실력은 우수했지만 상

동고동락(同苦同樂)

; 괴로운 일도 즐거운 일도 함께 겪음을 뜻함.
'함께'의 가치를 잘 알고 실천하는 기업의 선봉장으로서, 부서의 벽을 넘어 성장과 발전을 고민하며 세심한 눈길로 직원들을 살핀다. 그에게 실패는 소통의 기회요, 성공은 협업의 결과이다. 원익테라세미콘의 이재경 대표이사를 보고 있다면 사자성어 '동고동락'이 떠오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원익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이사

대적으로 통합이 어려웠던 곳이었어요. 협업이 가능하다면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그래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 집중하고 벽을 없애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성과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요. 2년간 노력한 결과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연말포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원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포지션이든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구성원간의 믿음이 생깁니다. 일을 미루지 않게 되고 흐름을 읽을 줄 알게 되죠. 가능성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표와 방향이 보다 명확한
산업입니다. 오로지 실력으로 우위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는 그 승부의
세계 한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Global Player로 가는 길

어떤 일이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저기도 보시면(벽면의 액자를 가리키며) ‘지금 고객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적어놨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를 듣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우리 분야는 지난 2년간 국내외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투자가 많아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기회가 올 리 없죠. 치열한 경쟁에서 잘 하는 것은 기본, 여러 설비를 갖춰 고객이 원하는 즉시 납품할 수 있어야합니다. 중국 요리집으로 비유를 하자면 맛있는 짜장면, 짬뽕은 기본으로 양장피, 유산슬, 동파육을 넘어 불도장 특선 요리까지 할 줄 알아야 글로벌 종합 메이커가 되는 거죠(웃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표와 방향이 보다 명확한 산업입니다. 오로지 실력으로 우위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는 그 승부의 세계 한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특히 4차 산업의 화두인 빅데이터는 전부 반도체로 만들어진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디스플레이도 현재 LCD산업에서 OLED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볼 수 있는데, 저희 원익테라세미콘이 자랑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바로 OLED입니다. 현재 OLED 기존 공정 설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도 하고 있죠. 때문에 지금 시장이 잠시 수축했다라도 원익의 전망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원익테라세미콘은 다양한 설비를 개발해 왔고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핵심 공정 설비도 개발 중에 있어 내년이면 명실상부 diffusion Maker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Diffusion Maker로서 Global Player가 되는 것. 이게 저희 원익테라세미콘의 가장 가깝고 확실한 목표입니다.

재능보다 귀한 가치, 사람

원익테라세미콘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사람입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많이 영입되었습니다. 신입 사원도 마찬가지고요. 회사가 커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원익테라세미콘과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재능과 스펙보다도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앞서 말했

듯 협업입니다. 협업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도 책임감을 갖고 함부로 미루지 않습니다. 둘째는 어떤 직무든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재능만 믿다보면 열정을 잃기 쉬워요. 꾸준히 노력하려는 열정은 자부심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 밑바탕이 깔린 전문가는 대체불가능 한 인력이죠.

마지막으로 주도적인 마인드입니다. 스스로 찾아서 일하고 소통을 통해 협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들으며 도움을 줄 수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냅니다.

4차 산업은 ‘융합과 공유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술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직문화 역시 서로 융합하고 공유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원익테라세미콘은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더라도 임직원 모두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거예요. 새로운 기회는 우리의 것이라 확신합니다. **W**



Hae.

가능성의 문을 여는
함께의 힘을 실천하자

삶에 퍼지는 핑크빛 한 방울

일 외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축복 아닐까요?
밀려드는 정보의 파도 안에서 자신의 취향을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니까요.
덕후는 그 안에서 스스로 보석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여기, 씨엠에스랩에도
자신만의 보석을 반짝반짝 갈고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씨엠에스랩 BM2팀 과장 유수양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카카오프렌즈의 캐릭터인 어피치(APEACHI) 덕후예요.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겠지요? 복숭아와 엉덩이를 묘하게 섞은 듯 귀여운 이 녀석어요. 저도 작년까지는 어피치를 이모티콘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들이 카카오프렌즈샵에서 샀다며 선물로 이 캐릭터 용품을 주고받더라고요. 자꾸 보니까 애착이 생기고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피치는 본인이 자옹동주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아 복숭아 무리에서 뛰쳐나온 반항아 콘셉트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짜증스런 표정이나 익살스런 표정이 많죠. 그럼에도 밍지 않은 건 핑크색에 땡글땡글한 겉모양이 사랑스럽기 때문일 거예요. 정말 러블리하지 않나요?(웃음) 요새는 전보다 귀여운 콘셉트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예전의 어피치에 더 마음이 간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수집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버지께서 양주를 수집하셔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우표와 구슬을 모았고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나 쪽지도 한 군데에 다 정리해 뒀어요. 지금까지도 가끔 열어보면서 추억에 잠기죠. 성인이 되면서는 색조화장품과 전자제품에 눈독을 들였는데, 특히 전자제품은 애플과 삼성의 신제품을 사모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돈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요(웃음). 또 여행을 다니면 그 나라의 스노우볼을 사와요. 4단 책장이 딱 찰 정도로 많이 모았답니다. 생각해 보니 참 많은 걸 좋아했네요. 지금은 어피치와 스노우볼.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어요.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너에게 끌려





씨엠에스랩 BM2팀 유수양 과장의 공간



세상과 나의 아주 특별한

연결고리



어피치 인형, 팬시용품은 물론이고 컴퓨터 키보드, 우산, 화장품 등등 모든 게 어피치로 통일되다 보니 주변에서도 어피치만 보면 제 생각이 난대요. 저희 씨엠에스랩 대표님께서도 어느 날 편의점에 가셨다가 어피치가 보이기에 제가 떠올랐다며 이야기 하실 정도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회사에서 자리를 꾸미는 데에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좀 엄격한 회사 같으면 아무리 개인 자리라고 해도 키보드 하나 바꾸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저희 대표님은 “이거 뭐야? 궁금하다.” 이런 반응이세요. 덕분에 제가 맘 편히 덕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친구들은 신상 정보를 저에게 알려줘요. ‘수양아, 이거 나왔대!’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죠(웃음). 생일에도 예외는 없어요. 거의 어피치가 그려진 제품들을 선물 받는데, 주면서 ‘너 이미 이거 갖고 있을 것 같아.’하고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덕후들은 같은 물건이 몇 개씩 있어도 상관없답니다. 예쁜 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또 저는 제품개발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어피치를 사 모으면서 각 용품마다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파악하고 작은 디테일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일석이조라고 하죠.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세상이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공부는 물론이고 악기, 용변, 태권도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줄 알아야 성공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 하나만 잘해도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적성이나 직업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도 무얼 해야 좋을지 헤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하나를 찾아낸다면 축복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전 제가 덕후인 게 좋고 어피치를 보면서 저를 연상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W**

어피치는 지금까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해왔어요. 생활용품, 목욕용품, 식품류까지도요. 얼마 전에는 한창 인기였던 '매운 닭 볶음면 까르보나라 맛'의 건더기 스프로도 등장했죠.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는 탓에 도전해 보지는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제가 좋아하는 스노우볼이나 화장품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몇 배로 행복해요. 지난 겨울에 어피치 스노우볼이 한정 상품으로 나왔었는데요, 출시되는 날 바로 가서 구매를 했어요. 혹시나 깨질까 아주 조심해서 보관하고 있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아직 가장 만족할 만한 조합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전자제품입니다. 아마 출시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노트북에 사과 로고가 아닌 어피치를 연상 시킬 수 있는 복숭아 로고가 박혀 나온다면, 핸드폰 케이스가 아닌 핸드폰 자체에 어피치들이 주르륵 줄을 서고 있다든가 하는 제품들이 나온다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거예요.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친한 친구들은 네가 먼저 망할지 어피치가 먼저 망할지 궁금하다고 해요. 제 생각엔 아마 제가 먼저 망하지 않을까 싶어요(웃음). 어피치는 제가 망하더라도 계속 사랑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주말이면 하루 종일 제품들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느라 애를 먹지만, 그래도 제가 힘들 때 위안이 되어 주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어피치가 있어 제 삶이 조금 더 핑크빛으로 물드는 것 같아요.

네가 어뻐면 모습이 든난 좋아



맛

있

잘 먹었습니다.
원익머트리얼즈 인사총무팀
일동





맛있는 간식으로 파워 UP!

원익머트리얼즈 인사총무팀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막내 사원이 팀의 에너지를 보충시켜주기 위한 서프라이즈 간식 시간을 마련한 것! 오랜만에 한데 모여 대화를 하고 감사와 칭찬의 메시지도 나누며 입꼬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는 시간이 었다.

신청자

안녕하세요 원익머트리얼즈 인사총무팀 김민아사원입니다. 업무로 인해 지쳐있을 저희팀을 위해 인사총무팀 귀염둥이 막내가 신청합니다 ♡

최근, 새로운 업무로 힘드신 부장님과 선배님, 공사현장 나가시느라 까맣게 타버리셨더라구요. 외근이 잦은 대리님도 갓 구운 빵처럼 변하셨고...과거에 우유마냥 새하얗던 세분은 기억도 안나네요.. 부장님은 매일 지쳐서 퇴근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기와 함께 놀아준게 언젠지 생각도 안나실거예요..

저희팀 선배님,대리님,과장님,부장님이 더이상 젊은 이팔청춘이 아닌데.. 건강 상황까지 걱정이 되어요 (가장 어린 선배님 30살ㅠㅠ) 우리 잘생기고 활력 넘치는 팀원분들 힘내시라고 막내가 살짝~몰래~ 간식 신청 해봅니다. 식사 못하실때마다 속상해요~

모두가 좋아하는 "치킨+피자"로 신청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익머트리얼즈 인사총무팀 핫팅핫팅 ♡♡♡

팀워크도 UP! UP!



은밀하게 위대(胃大)하게

때는 8월 31일 오후 세 시.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캄캄한 구내식당의 불이 차례로 켜지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세팅하는 사람들. “배달 왔습니다.” 적막을 깬 것은 치킨 배달원의 목소리였다. 일제히 치킨을 받아들고 자리마다 분배를 하는 그들은 바로 원익머트리얼즈 인사총무팀 사원들. 후배 사원들이 고생하는 선배들을 위해 서프라이즈 간식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어서 피자가 도착하고 준비를 마치자 선배 사원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음~맛있는

냄새! 고마워요.” 먼저 도착한 선배들은 후배들을 향해 연신 칭찬을 늘어냈고, 자리에 착석한 팀원들은 황홀한 냄새를 견디며 아직 도착하지 못한 구성원들을 기다려 주었다. 오늘의 간식 시간은 사원들을 위해 매일 힘써주시는 미화 담당자들과 구내식당 직원 분들도 초대하여 그간 받기만 했던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을 겸했다. 시작 전부터 훈훈한 분위기가 피어났다.

열여덟 명의 원익인들은 한 목소리로 “잘 먹겠습니다!”를 외치곤 먹방을 시작했다. 오후 세시 반, 한창 입이 심심해지는 시간이었기에 모두들 음식을 향해 이리저리 손

을 뻗었다. 그러면서도 팔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음식을 끌어다 주고, 음료수를 따라주기도 하며 서로를 배려했다.



항상 묵묵하게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노력하는 당신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강민 사원 →

가장 따뜻한 말, 감사

간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또 다른 이벤트가 시작됐다. 평소 감사했던 사람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을 쪽지에 적어보는 것. 완성된 쪽지는 한 데 모은 뒤, 가장 많은 감사를 받은 사람을 ‘오늘의 감사왕’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익명으로 해도 되나요?”, “아 부끄러운데”, “자기 이름 쓰기 없기야!” 다들 조금은 머쓱해 하면서도 손에 든 음식을 내려두고 시험을 보듯 손으로 종이를 가려가며 한 자 한 자 진지하게 메시지를 적어 내려갔다. 아직 누구에게 감사를 전할지 정하지 못한 사우들은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리다, 눈이 마주치면 씨익 웃기도 했다. 서로를 적어 주자는 무언의 텔레파시일까?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했던 때가 떠오르는 귀여운 장면들이었다.

각자의 개성대로 접어 낸 종이를 펼쳐자 기다렸다는 듯 따뜻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칭찬의 말부터 응원의 말, 결혼과 미래에 대한 덕담까지. 도저히 한 사람을 꼽지 못하겠다는 팀 전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메시지도 있었다. 평소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작은 종이 안에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들이 꼭꼭 담겨 있었다.

두구두구두구! 긴장되는 발표 시간. 궁금증과 기대로 가득 찬 눈빛들이 반짝였다. 감사왕은 선배 부문과 사원 부문으로 나뉘었는데, 선배 부문에는 권봉진 상무가. 사원 부문에서는 이강민 사원이 각각 감사왕의 명예를 안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이름이 호명되자, 얼떨떨한 듯 당황한 표정이었으나 이내 흡족한 얼굴로 성큼성큼 앞으로 나서 소감을 말했다.

/ 권봉진 상무 새로운 조직도 팀에 합류하고 새로운 직원도 합류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인사총무팀, 업무에 관한 것도 팀워크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나아졌고요 올해보단 내년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 이강민 사원 일단 저를 뽑아주신 데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칭찬 받을만한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고 하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좋게 봐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감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쏟아졌다. 간간히 “멋지다!”, “노래해!”라는 말이 날아들었고 두 사람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손 하트를 하는 등 재치 있는 인사로 마무리 했다.

간식과 함께, 팀워크와 행복

감사왕 이벤트가 끝나고도 인사총무팀은 다 함께 셀카를 찍고, 마침 오늘 생일인 사우에게 다 함께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어느덧 소란했던 간식 시간이 마무리되고 연신 배 부르다는 기쁨 섞인 곡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작은 서프라이즈가 가져온 행복한 땀방울이었다. 선배 직원들은 자리를 준비해 준 후배 직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속한 정리가 눈에 띄었다. 누구 하나 손을 얹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은밀했던 시작과는 달리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쓰레기를 정리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했으며 테이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칭찬
두 가지가 공존했던
맛있는 시간

블과 의자를 원상복귀 시켰다. 사우들은 “이제 또 일하러 갑시다.”하는 말에도 아쉬운 표정 없이 한껏 부른 배를 두드리며 걸음을 옮겼다. 다시 일터로 향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맛있는 간식을 먹었다는 만족감과 묵혀뒀던 속마음을 전달했다는 기쁨이 비쳤다. **W**



진정한 팀워크는
웃는 낯이 아닌
웃는 마음으로부터.
화사한 마음들이 모인
원익머트리얼즈
인사총무팀

송기옥 여사님 항상 회사를 위하여
정소해주시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
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사람 권봉진 상무님♡
우리 팀의 리더☆

화목한 분위기의 인사총무팀원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강민 사원. 전의사업장 사무동을
예쁘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
다. 늘 직원을 위해 수고하시고. 강
민 씨,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병섭 부장님! 항상 유쾌한 웃음으
로 모두를 즐겁게 해주시는 명실상
부 리얼 원익인! 오래오래 만수무강
하세요!

영인. 큰 키만큼 일도 열심히...
결혼 해야죠^^ 늘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파이팅!!

종구. 고생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힘내자. 고맙고 파이팅

송태호 부장님. 팀과 팀원들을 위하
는 마음이 좋습니다.



간지러움은 살짝
접어두고
마음을 꺼내 봐요
오늘은 인사총무팀
감사의 날

이병섭 부장님. 바쁘신데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부장님
최고! 매일매일 항상 감사합니다.
부장님 짱!

이경희 영양사님. 항상 감사감사
합니다. 주미동생도 늘 감사감사
합니다. 기욱언니께도 항상 감사합
니다.

권봉진 상무님, 인사총무팀 대빵으
로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
님처럼 부하직원들을 항상 생각하
고 챙겨주신다. 그리고 굉장히 스타
일이 트랜디하여 깜짝 놀라곤 한다.
언제나 밝은 미소 잃지 않으시길.

권봉진 상무님. 늘 밝은 얼굴로 팀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_^

양재철 총무님. 저희 팀 생각해주서
서 감사합니다.

권봉진 상무님. 늘 밝은 얼굴로 팀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_^

이호태님 항상 알아서 일을 잘해서
고맙습니다



세
밀
한
꽃
의
화
가

무제 Untitled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112 x 145 cm
2010

김 홍 주

세필로 정교하게 그려나가는 그의 작품 방식은 선생님이라는 직업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쉬는 시간, 혹은 수업이 다 끝난 후 짬짬이 작업을 하는 그의 상황에 맞게 언제라도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회화의 소재 또한 작업실 주변에서 찾았다. 1970년대 ‘거울과 얼굴’이라는 소재도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그가 찾아낸 자연스러운 소재였고, 이후 ‘창문을 통해서 본 풍경’이라든지, ‘꽃’도 비슷한 맥락이다.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꽃’이라는 소재를,
가장 얇은 붓으로,
가장 얇게 채색한다.

The 5th Gallery

하찮은 존재라 여겨 ‘꽃’을 택했다는 김홍주. 그의 꽃그림은 화사한 색감과 아크릴릭 물감의 얇은 채색이 주는 산뜻한 느낌에 힘입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김홍주의 ‘꽃’ 그림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끈 계기는 1999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국제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이다. 이를 발판으로 2005년 로댕갤러리에서 그의 대규모 전시가 열렸다. 로댕갤러리는 한국 회화작가로는 최초로 김홍주를 초대했다. 이 전시에서 김홍주의 1970~80년대 이미지와 실재의 간극을 넘나드는 작품, 1990년대 후반부터 무수한 세필로 ‘꽃’을 형상화한 작품 등이 대거 소개됐다. 그의 꽃은 세필의 반복적인 터치로 화면을 가득 채워 나가는 장인 정신의 산물이다. 그의 작업은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의 시간과 신체성을 담고 있다.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느끼는 손의 감각 그리고 손과 캔버스의 교류, 재료와 도구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그의 작업 과정을 정의한다.

이렇게 그려진 김홍주의 꽃을 대면했을 때, 대개의 사람들은 당혹스러워 한다. 화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꽃과 그것의 세밀한 묘사에 이끌려 캔버스 앞으로 다가서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꽃이 아니라 그저 ‘아

무개 꽃’이기 때문이다. 이때 느끼는 당혹감에서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어렵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꽃’이라고 하면 개개의 꽃이 가진 상징이나 형이상학적인 해석들을 가지고 달려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김홍주는 “나는 단지 옛날에 풍경과 얼굴과 같은 것들을 그리듯이 그와 같은 태도로 꽃을 그렸을 뿐이거든요. 다만 대상만 다를 뿐이죠. 작품을 통해서 메시지를 드러낸다면 대상은 상징화하는 것과 같은 의도는 애초에 나한테 없어요. 내가 그리기 편하면 돼요. 꽃이나 잎은 형태가 단순하잖아요. 형태의 강박감이나 원근법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단지 내가 그리고 거기에 색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요”라고 답한다.

그는 작업실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찾아낸 소소한 것들로 회화의 본질을 연구했다. 40여 년 긴 작업 여정은 굉장히 상이한 작업 스타일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서로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며 진화해 왔다. 지금 그의 작품은 아스라한 꽃 모양으로 향기를 풀어내지만, 그의 지난 작업을 추적하다 보면 그가 사실은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첨예하게 맞섰던 전방위 작가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W**

약력

1945 충북 회인 출생 1969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1973 S.T. 그룹전 (~1977,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8 서울화랑 개인전 1980 프랑스 칸느 국제 회화제 특별상 수상 1981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전공 졸업 1985 일본 후쿠오카시립미술관 <아세아미술전> 1993 미국 뉴욕 퀸즈미술관 <태평양을 건너서> 1995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질.암.감전-한국미술 '95'> 1997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삶의 경계> 2001 호암갤러리 <사실과 환영, 극사실 회화의 세계> 2002 국제갤러리 개인전 2005 로댕갤러리 개인전 <김홍주_이미지의 안과 밖>



무제 Untitled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225 x 225 cm



무제 Untitled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112 x 145 cm

WIDE



원익은 지금 ❶

나의 자부심은
너의 금지가 되리라

원익은 지금 ❷ 원익머트리얼즈

한마음의 날갯짓, 보람의 바람으로

원익은 지금 ❸ 씨엠에스랩

지금 가장 핫한 그들. 박막례, 조현우
그리고 셸퓨전씨

원익은 지금 ❹ 원익아이피에스

발전을 위해 먼저 발전하는 사람들

행복일터

서로를 인정할때 금지와 보람이 솔솔

OUR WONIK.
YOUR PRIDE.

나의 자부심은
너의 긍지가 되리라

지난 7월 19일,
원익의 현재와 미래가 만났다.
서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이며 마주한 그들.
선배들은 애정을 담은 조언을,
새내기들은 스스럼없는 질문을
나누며 새로운 원익의 앞날을
그려 나갔다.

초록이 무성한 여름날, 자동차 광고에 나올 법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양평의 더블룸 비스타(The Bloomvista)에 도착했다. 자연 내음이 그득한 이곳에 원익의 새로운 얼굴들이 모여 있기 때문. 본래 하반기에만 진행하던 CS부문 신입사원 공채가 처음으로 상반기에 열려 51명의 신입사원이 채용되었고, 7월 16일부터 28일까지 이곳에서 입문교육을 받고 있다. 오늘은 고대하던 <CS Talk Concert>가 열리는 날. 선배사원들을 만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원익인으로서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모두가 도와줄 겁니다

형광색 점퍼를 입고 우르르 등장한 새내기들은 며칠간의 합숙을 통해 끈끈한 유대가 만들어졌는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선배사원들이 등장하자, 입장할 때와는 사뭇 다른 진지한 눈빛으로 배움에 대한 강한 기대를 비쳤다.

선배사원들의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토크콘서트의 막이 올랐다. 새내기들은 여섯 명의 선배사원이 각자 소개를 끝낼 때마다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분위기를 달궜다. 곧바로 유진혁 과장이 CS업무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제가 생각하는 CS는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엔지니어예요. 고객을 만나고 고객이 다루는 장비를 저희가 고쳐 주니까요. 저희는 고객의 장비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진단을 하고 본사에 피드백을 줍니다. 필요한 부서를 직접 찾아 중재를 하고 해법을 만들어 내요. 스스로 움직여야지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해결하겠다’는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지녀야 해요.”

이어서 해외업무의 어려운 점, 외부 시각에서의 CS, 후배들에게 주는 조언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선배사원들은 본인이 발로 뛰며 배운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 위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의자를 당겨 앉으며 새내기들과의 거리를 좁혔고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제스처로 설명에 살을 붙였다. 새내기들 또한 하나라도 놓칠 수 없다는 듯 메모를 하고 선배들과 눈을 맞추며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지한 설명으로 공기가 다소 무거워질 법하면 선배들은 가벼운 톱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선배사원 김상훈 과장은 “해외업무를 나갔을 때, 정전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전기가 영어로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머리를 문질러 머리카락이 솟아오르는 걸 보여줬죠.”라며 너스레를 떨다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모두가 도와줄 겁니다.”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또 김형용 과장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이 잦아요. 그럴 땐 상대방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하고 원익선배에 앞서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71



HAPPINESS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전국 곳곳으로 출장을 다닐 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고 맛집을 알아봤죠.
그러니 다음 출장이 기대되곤 하더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작은 성공이라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원익은 그런 작은 자부심이 모여 만들어진 곳이니깐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느새 강하게 내리쬐던 해도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집중력이 흐트러질 만도 한데, 세미나실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타올랐다.

준비된 답변이 끝나고 새내기들의 자유질의 시간이 시작됐다.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손이 돌아났다. 가장 먼저 기회를 잡은 새내기 사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직책까지 오르는 데에 한 번쯤은 매너리즘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겨 내셨는지 알려 주세요.”

이에 김성훈 상무가 마이크를 잡았다. “첫째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전국 곳곳으로 출장을 다닐 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고 맛집을 알아봤죠. 그러니 다음 출장이 기대되곤 하더군요. 요즘은 ‘소확행’이라고 하죠? 일상에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즐거움을 찾으세요. 둘째로는 제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자 했어요. 내가 만든 이 제품이 언젠간 성공할 거라고.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해요. 그러다 보면 자부심과 자신감이 떨어지고 매너리즘으로 이어지죠. 언제나 제품에 대한 긍지와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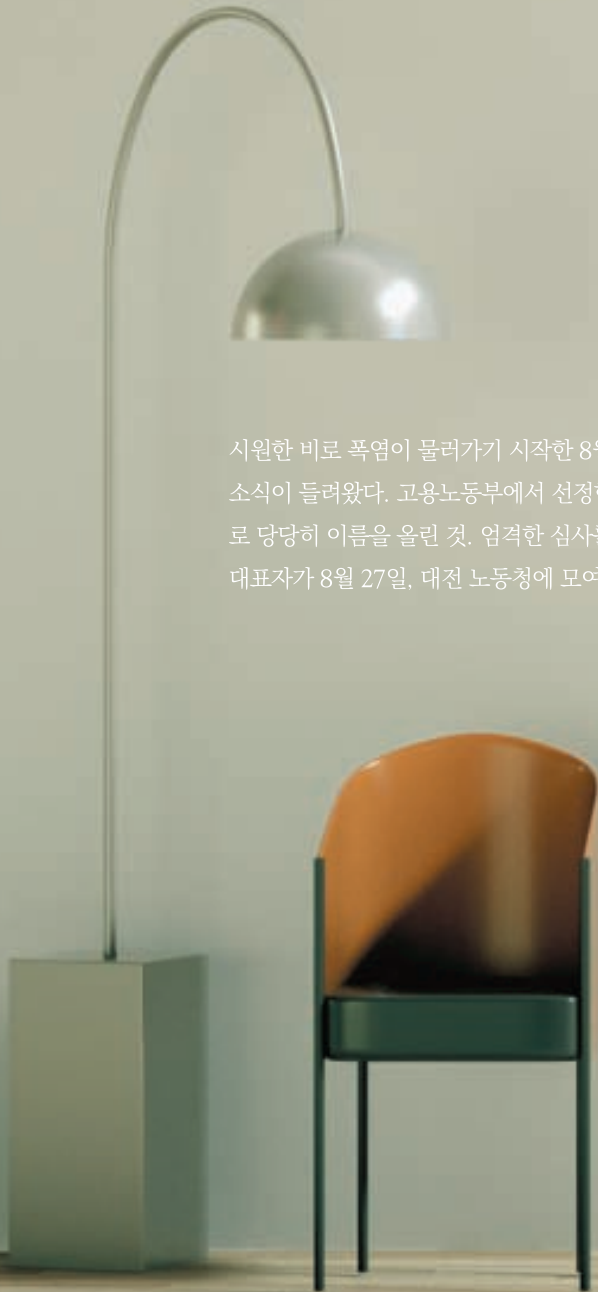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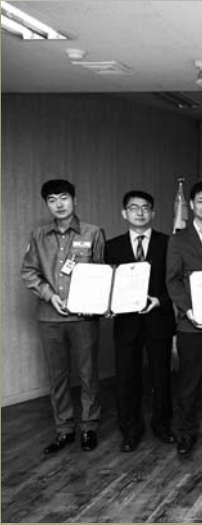
정성스런 답변에 새내기들의 얼굴에 자못 비장한 각오가 흘렀다. 원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가득 차오르는 듯 보였다. 이어서 하루 업무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원익홀딩스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질문과 답이 오갔다. 선배들은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익살스럽게 대답하며 원익인이 된 이들을 격려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작은 성공이라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원익은 그런 작은 자부심이 모여 만들어진 곳이니깐요. 혹시나 제가 있는 부서로 오시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먹는 것만큼은 책임지겠습니다(웃음).”

준비된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고 소감까지 나누고 나자, 새내기들은 각자 어떤 결심을 품은 듯 단단해진 모습이였다. 앞으로 이들은 어떤 성취를 하고 보람을 느끼게 될까? 선배들의 자부심을 이어받아 원익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이들의 앞날이 궁금해진다. **W**

한마음의 날갯짓, 보람의 바람으로 돌아오다

시원한 비로 폭염이 물러가기 시작한 8월 말, 원익머트리얼즈에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기업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일곱 개 업체의 노사 대표자가 8월 27일, 대전 노동청에 모여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수 받았다.





“귀사는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선도하여 2018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고용 노동부 장관 김영주”

전수식은 오전 10시, 노사대표자들이 간단한 티타임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됐다. 대표자들은 다소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녹이고자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눴다. 자리에 함께한 대전 노동청장은 “노사상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업체는 많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신 분들이니 긍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한 마음으로 상생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선정된 기업들을 아낌없이 축하했다.

약 15분간의 티타임 후 엄숙한 국민의례로 본 전수식의 막이 열렸다. 먼저 일곱 개 업체의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차례로 호명된 업체 대표자들이 노동청장에게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수받았다. 원익을 포함한 모든 업체의 대표자들은 타 업체가 수상할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 주며 서로를 축하했고 수상자들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인증서와 인증패 그리고 꽃다발을 안고 돌아온 사측 대표 김동우전무, 노측 대표 백현석 대리의 소감을 들어봤다.

앞으로도 이들은
서로의 언어에 귀 기울이며
하나의 원익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측 대표 김동우 전무 →
노측 대표 백현석 대리 →



노사 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 환경 못지않게 건강한 노사문화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면 두려움 보단 자신감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노사문화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노) 저희는 노조 대신 '한마음 협의회'라는 직원협의회를 운영합니다. 노측과 사측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협의를 통해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의미이죠. 저는 이 한마음 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로 활동했기에 이상을 받은 감회가 남다른데요. 또, 수상을 했지만 심사과정을 통해 개선할 점도 많고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 금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경쟁률은 그 어느 해보다 치열했습니다. 원익머트리얼즈의 규모로는 경쟁하기에 벅찬 부분도 분명 있었죠. 경영진에서는 한마음 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모두가 협업하여 만들어 낸 성과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노) 전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익머트리얼즈는 성장할 여지가 많은 회사이기에 벅찬,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은 곳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채워나가는 과정에 충실하고 있음을 어필하려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장점으로 돌려 낸 거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각 측에서 가장 고려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 일방적인 강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원진이 근로자들에게 일방통행으로 지시만 내리는 방식은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발전을 위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원활한 쌍방통행이 가능하죠. 사측의 진심을 근로자들이 알아주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노) 근로자 대표로서 직원들의 니즈와 회사의 정책 사이를 오가는 부분은 분명 힘듭니다.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중재하려 노력하죠. 그리고 한마음협의회의 궁극적 목적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회사의 발전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으려 늘 마음에 새깁니다.

전수식이 끝난 뒤, 원익머트리얼즈의 김동우전무, 백현석대리 외 5인의 대표들은 근처 한정식 전문점에서 자축하는 의미의 오찬 시간을 가졌다. 테이블에 둘러 앉아 근황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부터 최근 근로자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것인지 심도 있는 대화 까지 격의 없는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발전을 위한 진심들이 엿보였다. 사측 대표인 김동우 전무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후엔 확실히 좋아질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됐네요. 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입니다. 내년엔 분명 더 좋아질 거예요.”하며 직원들에게 공을 돌려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 그들의 진정성이
빛을 본 순간.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 최근에는 직원들이 일하는 업무공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무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휴식공간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또 임직원 건강검진, 휴양 등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챙기도록 하고 워라밸을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죠. 내년에는 어린이집도 완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노) 올해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되어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 문제

가 생겼었습니다. 전 사회적인 변화였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분명 있었죠. 하지만 줄어든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측과 수차례 진지한 협의를 하면서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사)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근로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개개인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기계발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안전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안전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 메리트 주는 제도를 고민 중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머네요(웃음)

노)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 준비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다른 기업대비 우수한 제도를 가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간극을 줄여나가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사 간의 신뢰를 잘 유지하려 합니다.

몸도 마음도 배부른 하루를 보낸 이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상생을 위해 늘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CMISLAB 광고 촬영 현장

지금 가장 핫한 그들. 박막례, 조현우 그리고
셀류전씨

7월 30일, 경기도 파주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광고촬영 현장.
조현우 선수와 박막례 할머니가 편안한 모습으로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순간이 도전이죠.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멀리서 보아도 흰칠한 키와 흰 피부가 눈에 띄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화려한 선방쇼로 세계를 사로잡은 조현우 골키퍼. 특유의 헤어스타일과 백옥같은 피부로 각종 매체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그는 예상 밖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꼼꼼한 동선 체크를 통해 광고계의 블루칩임을 증명했다. 게다가 예의바르고 다정한 행동으로 촬영장을 훈훈하게 물들이기도. 즐거운 분위기로 리허설을 마친 그를 만나 궁금했던 점을 물어봤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완벽한 선방과 함께 흐트러지지 않는 헤어스타일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평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네. 특히 운동장에서 멋있어 보이려 노력하는 편이에요. 평소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축구선수니까 경기장에서 가장 멋져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 훈련도 열심히 하지만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걸모습을 만져두는 거죠.

축구선수라는 직업 특성상,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피약별에 피부가 상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백옥같은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원래 피부가 흰 편이에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보니 피부가 타거나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에 가장 중심을 둡니다. 사계절 내내 선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훈련을 열심히 안하냐는 장난 섞인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웃음), 훈련은 아주 박세계 하고 있습니다.

안정환, 이동국 선수 등 화장품 광고를 찍은 꽃미남 선수대열에 합류하게 되셨어요.

아이고, 제가 그런 대선배님들하고 비교가 되나요. 그래도 영광스럽네요(웃음). 국민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주신 덕에 이렇게 화장품 광고까지 하게 된 거죠. 황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월드컵 못지않게 앞으로의 경기에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테니,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셀프전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세미스? 씨무스?(CMS) 이름이 어려워야!”

낮선 영어에 어렵다는 말을 연발하시면서도 숏이 들어가면 프로페셔널한 애티튜드로 제작진들을 놀라게 했던 박막례 할머니. 한창 인기몰이 중인 유튜브 스타답게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치과 가는 날 메이크업’, ‘칠순잔치 가는 메이크업’ 등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특유의 입담으로 끌어들이는 유튜브 구독자가 벌써 53만 명. 손녀 김유라씨가 할머니의 치매예방을 위해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둘의 인생을 180° 바꿔놓았다. 연일 이어지는 인터뷰 요청과 광고 문의에도 오직 할머니의 즐거움을 위한 것만 한다는 유라씨. 오늘 광고 촬영이 할머니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리안 그랜마’ 박막례 할머니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71세라는 나이에 스타가 되셨어요.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나요?

다 유라 덕분이야. 할머니 치매 오기 전에 좋은 구경시켜준다고 여기저기 데리고 가고 집에서 나 화장하는 거 이리저리 찍더니 그게 대박이 났대. 팬들도 많이 생기고 아주 행복해.

특히 화장하시는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다양한 메이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사서 써보는 거야. 비싼 것도 써 보고, 싼 것도 사다 써 보고. 요즘엔 팬들이 자꾸 화장품을 보내줘. 피부 관리도 생전 안 해봤는데 팬들이 팩을 보내줘 가지고 해 봤어. 얼굴에 붙이는 거 있잖아. 처음엔 할 줄 몰라서 애먹었는데 자꾸 허니까 좋더라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시잖아요. 어렵지 않으세요?

내가 인스타 그걸 해보려고 유라한테 새벽 2-3시 까지 배우고 그랬어. 잠도 안 자고. 치매예방이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애들이 잘 가르쳐 줘서 이제 잘하지. 팬들이 선물 주면 거기에 찍어 올리고 그래.

올해엔 구글 본사에도 초청되시고 과학기술부 장관상도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감사하단 말밖에 못하겠어. 젊은이들한테 고맙고 팬들한테 고맙고. 여기까지 온 건 다 그 양반들 덕이야. 칠십 넘어서 장관님 상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인생이 확 뒤집어져 부러워.

화보촬영, 스탠딩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멋지게 성공 시키셨어요. 오늘 광고촬영도 잘 부탁드려요.

잘 해볼라고 내가 이거(가발)도 하고 왔어. 요새 하얀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잘 할랑가 모르겠네. 잘 해볼게요! 잘 봐주세요! 세메스? 씨미스? 이름도 까다롭네? 파이팅! 사랑해요!

센스 넘치는 답변으로 인터뷰를 마친 박막례 할머니, 조현우 선수는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촬영을 재기했다. 틈틈이 서로에게 음료를 챙겨주기도 하고 에어컨 바람이 미치는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면서. 오전부터 시작된 촬영은 해가 누엣누엣 질 때 까지 계속됐다. 긴 촬영에 지칠 법도 했지만 제작진과 임직원들과의 사진,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답하며 연신 고맙다, 감사하단 말을 전하는 따뜻한 두 사람의 미래를 응원한다.

모두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하루. 이날 만들어진 광고가 CMSLAB에 한 스폰의 발전을 더해줄길 바라며.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한 이번 촬영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곧 시작 될 촬영을 위해 단장 중인 박막례 할머니.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오신 덕에 고칠 데가 별로 없었다는 후문.



발전을 위해 먼저 발전하는 사람들



뜨거운 태양 아래, 유리로 둘러싸인 한 건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명감에 가득 찬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은 바로 삼성전자 협력사의 HRD담당자들. 그들 사이로 원익아이피에스의 반가운 얼굴들이 보인다. 오늘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걸까?

매미가 우렁차게 노래하던 7월 말, 수원 영통구 삼성 상생협력아카데미 2층에 마련된 대강당에서 <HRD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오늘 여기서 원익IPS의 안중명 과장(이하 안과장)이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협력사 중 원익아이피에스의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원익의 HRD를 다른 기업에 소개하고, 협력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

오후 한 시부터 열린 세미나는 서울대 이찬 교수의 HR 특강이 끝난 후 세 시부터 우수 사례 벤치마킹, 네 시 이십분부터 협력사 교육 소개, 과정 정리로 장장 네 시간에 걸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원익아이피에스의 앞 순서는 PSK사의 교육 운영 사례 발표였다.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된 세미나에 피곤할 법도 했지만 참가자들은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촬영하고 필

기도 하는 등 열정적으로 청취하는 모습이였다. 발표가 끝난 뒤에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쏟아지는 질문에 다음 차례가 미뤄질 정도. 모두들 자사와는 다른 HRD에 관심이 지대한 듯 보였다.

약 사십 분가량의 앞선 발표가 끝나고, 드디어 원익의 교육 체계를 소개하는 시간이 왔다. 안과장은 처음엔 다소 긴장한 듯 했지만 단상에 오르자 금세 여유를 되찾은 듯 가벼운 인사로 입을 뗐다.

원익의 HRD체계는 WVA(Wonik-IPS Value Academy), WLA(Wonik-IPS Leadership), WEA(Wonik-IPS Expert Academy), WFA(Wonik-IPS Future Academy),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입사 후 적응기부터 미래 산업의 전문가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으로 모두가 동등하게 교육을 받는다.



01

WVA(Wonik-IPS Value Academy)

원익의 핵심가치를 교육체계에 반영한 가치교육, 법정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

- 1) 원익의 핵심가치:** '자유, 소통, 행복' 세 가지 테마로 교육을 진행
자유: 창의적 사고 (창의성과 창의력의 개념 이해,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법 등)
소통: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기본 원리, 감정소통, 멘토링)
콜라보레이션 (타 조직 업무 이해, 조직간 소통, 협업 방식)
행복: 원익아이피에스인 MIND-SET (원익아이피에스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 경영진 특강)
- 2) 법정 교육:** 환경 안전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인으로서 함양해야하는 윤리

03

WEA(Wonik-IPS Expert Academy)

각 직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 교육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발적 프로그램을 운영

- 1) 공통 역량 부문**
Work Skill 아카데미: 문서 기획, 비즈니스 매너, 프레젠테이션, 협상, OA
- 2) 자발적 학습문화 조성**
전사 학습 조직: 업무 개선 형/전문가 연계형/ 미래지식 확보
공개 학습 조직: 전문가 연계형 학습조직 강화/개인별 희망과정 학습조직

02

WLA(Wonik-IPS Leadership)

입문교육, 승격 교육, 계층별 리더십 상시교육으로 임직원의 지속적인 역량향상을 도모

- 1) 입문 교육:** 신규, 수시 입사자들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 교육 프로그램
'입문가이드 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장비 기초 교육' 순서로 진행
- 2) 승진 대상자 과정:** 승진 대상자가 계층별 핵심 리더십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
승진 前: 온라인 교육 (리더십/업무역량 과정)
승진 後: 집합교육(역량 향상 과정)
- 3) 계층별 리더십 교육**
리더십 실천: 나의 Leadership다짐 액자 만들기
갈등 해소: 밀레니얼세대와 기성세대의 이해
Mindfulness: 자아성찰, 바디체크, 명상

04

WFA(Wonik-IPS Future Academy)

원익의 경영 전략인 '신 성장 동력 확보'를 반영하여 미래 산업, 글로벌 역량, 사내 전문가 육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 1)미래 통찰 영역**
원익 인문학 아카데미: 경영 Insight를 위한 심리, 사회 등 인문학 특강
미래 특강: 업계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 초청 강연
- 2)글로벌 특화 영역**
전 임직원: 어학과정, 글로벌 Insight과정
특화 인력: 주재원 과정(주재원 처우 안내, 어학 교육, 문화 교육, 적응 교육)
- 3)사내 전문가 영역**
사내강사 양성과정, 면접관 교육, 우수 전문가 연수(우수 성과자에게 해외 연수 지원)

한차례 HRD에 대한 설명을 끝낸 안과장은 원익의 교육 담당자로서, 참가자들과 함께 견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HRD의 변화가 그 주제였는데 노동 환경이 바뀌어감에 따라 교육 환경도 바뀌어야 하기에, 그의 제안에 따라 협력사들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직원들이 부담 없이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갔다.

발표가 끝난 뒤 한 참가자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묻자, “원익의 Mindfulness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직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자존감과 스트레스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자체가 사원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 참가자의 말처럼, 위의 네 가지 HRD체계만 보아도 원익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보다 사원들이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원들의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더불어 업무 효율도 높이고 있다는 게 원익아이피에스 HRD의 가장 큰 장점.



숨 가쁘게 세미나를 마친 안과장은 오늘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고객사에서 마련한 이런 좋은 자리에서 저희 원익아이피에스에 대해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뜻깊었고, 그 중심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답하고는 뒤이어 “인재 육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아요. 키워드나 세밀한 부분만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죠. 원익도, 타사도 해마다 사원들의 트렌드와 니즈를 반영하여 체계를 리뉴얼하고 더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라며 뿌듯한 미소를 짓곤 자리를 떠났다.

교육을 위해 먼저 교육을 받고 자신들의 사례를 나누며 한 단계 더 성장한 사람들. 세미나가 끝난 후, 건물 밖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토론을 이어가는 이들이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인재를 만들어 내게 될지 기대된다. **W**

공지와 보람은 인센티브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공지와 보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에, 더할 나위 없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원익머트리얼즈 / 이진우 과장



서로를 인정할때 공지와 보람이 솔솔~

WONIK GROUP

성취감이다.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행복의 첫 걸음이지요.

원익머트리얼즈 / 박현석 대리



내가 사랑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공지가 없으면 보람이 없고, 보람이 없으면
공지도 없을 것입니다. 상호관계이면서 행복하게 일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바탕이 되어야 할 필수조건이지요.

원익아이피에스 / 김태운 상무

나의 역할이다.

내게 주어진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 때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그걸 충분히 인정받고 있기에 공지를 느끼고,
자신이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 성공해낼 때,
공지와 보람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원익아이피에스 / 유진혁 과장



믿음이다.

스스로 잘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아주 작은 성공조차 보람 있게 느껴진다.
반대로 실패를 하더라도 공지를 잃지 않게 된다.

원익홀딩스 / 김성훈 상무





팀원의 웃음이다.

팀원들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면
특별히 공지와 보람을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익테라세미콘 / 김계현 팀장

직원들의 성공과 행복이다.

직원이 행복해야 만족도와 성과가 올라가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원익머트리얼즈 / 김동우 전무

인정이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인정받는다면
그 이상의 공지와 보람이 있을까요?

원익테라세미콘 / 권혁기 과장



공지와 보람은 칭찬이다.

제가 업무의 성취를 이뤘을 때는 선배가 저를
칭찬해주며 공지와 보람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반대로 제가 후배를 칭찬해줄 때에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칭찬을 통해 공지와 보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원익테라세미콘 / 황상준 과장

공지와 보람은 특별한 혜택이다.

공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사람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반대로, 공지가 없다면 보람도 느낄 수 없죠.
그래서 공지와 보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이 2가지 요소가 모여 행복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원익홀딩스 / 김형진 과장



서로를 신뢰하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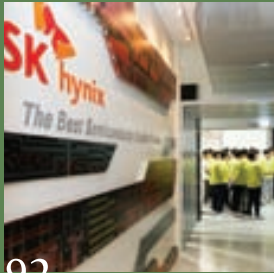
크건 작건 원익이 설정한 방향을 신뢰하고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간다면 행복의 핵심가치에 닿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감이 싹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익큐브 / 이지현 과장



NEWS FOCUS

AUTUM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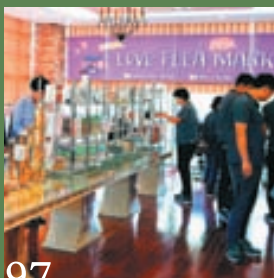
92

원익그룹

SK하이닉스 지식공유 협약식
원익 CS공채, SK하이닉스 교육이수

원익홀딩스

협력사와 단합 축구시합
원익홀딩스가 간다 - 대한민국VS칠레
원익홀딩스 신규동호회 탄생(H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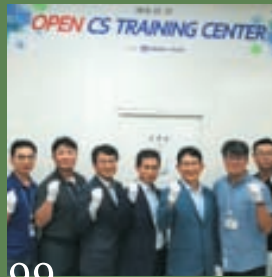
97

원익큐엔씨

2018 LAM Research 'Supplier Excellence Award' 수상
원익의 미래를 이끌어갈 Beginner's Day 시행
일석이조의 기쁨, 사내 플라마켓 개최

원익아이피에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박람회 참여
해외사이트의 확대



99

원익테라세미콘

2018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
반도체사업부 진위사업장 이전
CS 반도체 트레이닝 센터 오픈
CS 공채 1기 기술교육
임직원 만남의 장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인증

씨엠에스랩

국군 장병들에게 마스크팩 1만장 기증



103

원익

(주)원익 일본 화장품 브랜드 'FLOWFUSHI(후로후시)'
국내 단독 론칭

원익그룹

SK하이닉스 지식공유 협약식

원익그룹과 SK하이닉스가 기술 정보 및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협약을 맺고 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7월 19일,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에서 원익과 SK하이닉스는 ‘기술교육 교류를 위한 쌍방향(Two-Way) 지식 공유 협약식’을 맺었다. 본 협약식에는 박영규 원익 기획조정실장과 김대영 SK하이닉스 교육담당 상무, SKHU(SK Hynix University) 전임교수, 강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SK하이닉스에서는 원익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반도체 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원익에서는 SK하이닉스 기술자들이 장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익은 반도체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SK하이닉스는 장비에 대한 전문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익은 그동안 SK하이닉스에 장비를 공급할 때만 일회성으로 기술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이 협약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노하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SK하이닉스 김대영 상무는 “이번 협약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력사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협력사들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상생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협약의 취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밝혔다.

이러한 쌍방향의 지식공유를 통해, 원익과 SK하이닉스가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가 되길 기원한다.



원익그룹

원익 CS공채, SK하이닉스 교육이수

기술교육 교류를 위한 지식공유 협약식을 맺은 원익그룹과 SK하이닉스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지식공유의 일환으로, 원익그룹 CS대졸공채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교육을 수강하게 된 것. CS공채는 원익그룹 계열사인 원익홀딩스, 원익아이피에스, 원익테라세미콘의 CS엔지니어 역할을 하게 될 신입사원들을 선발한 것으로, 총 51명의 신입사원이 지난 7월 16일 입사하여 2주간 입문교육을 진행하였다.

반도체 공정교육은 원익 CS공채 입문교육 2주차에 진행되었으며, 제조기술 및 반도체 Trend 이해를 비롯해, DRAM / NAND / PKG 공정, 반도체 신뢰성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졌다. 자칫 이해하기 힘들고 지루해질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SK하이닉스 강사진의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강의력으로, 모든 신입사원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공정 이론 교육 이후에는, 신입사원들을 위해 특별히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투어 시간이 마련되었다. 본 투어는 SK 하이닉스의 제품 및 역사를 전시한 홍보관 관람과, 현재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라인 투어, 점심식사와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론으로만 배워왔던 제품과 공정들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신입사원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점심식사도 이날 중복을 맞아 특별히 삼계탕을 준비해,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공정교육과 투어를 통해, 원익의 CS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신입사원들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으리라 기대해본다.



원익홀딩스

협력사와 단합 축구시합

원익홀딩스가 협력사와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작은 이벤트로 협력사와의 축구시합을 진행하였다. 2018년 8월 9일 진행된 본 행사는 당사 전장 쪽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협력사 JS SYSTEM 직원 20명과 원익홀딩스 20명의 직원이 모인 자리였다. 경기는 11대 11로 하고, 총 3타임으로 진행되어 참석한 직원들이 최대한 많은 경기를 뒀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원익홀딩스 내에서도 품질, 환경안전, 설계, 영업 등 5개 이상의 부서 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원익홀딩스 3:2 승리) 본 행사에 참석한 환경안전팀 직원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적으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본 축구시합을 통해서 직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JS SYSTEM측에 참석한 직원도 “ 원익홀딩스와 같이 일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즐거운 경기가 된 거 같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원익홀딩스와 협력사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있어서도 시너지가 나기를 기대해 본다.

원익홀딩스 신규동호회 탄생(HFC)

지난 8월 원익홀딩스 내에 새로운 동호회가 생겼다. 이름하여 “HFC(Healing&Fishing Club),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취미활동 공유를 위해서 만든 낚시동호회이다. HFC의 활동은 낚시+여행테마로 하여 전국 각지를 방문하며, 회원들의 힐링과 휴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본 동호회는 소속된 동호회원들은 대부분 개인 낚시 장비가 있거나, 주기적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낚시를 다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탄생한 동호회로, 요즘 낚시 인구가 700만이 될 정도로 취미생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때에 발맞춰 생겨난 것이다. 현재 회원 수는 13명으로, 앞으로도 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회사 게시/공지 등을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회사의 복지 중 동호회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된다. 이런 동호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심신안정 및 힐링이 회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협력사와 단합 축구시합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가 간다 - 대한민국VS칠레

2018년 9월 11일 수원월드컵 경기장에 원익홀딩스 직원들이 나타났다. 이 날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뒤 진행되는 2번째 평가전으로 남미의 강호 칠레(피파랭킹12위)와 경기를 하는 날이었다. 본 경기를 직접 관전하기 위해서 경영기획팀 이상훈과장을 선봉으로 약 한달 전부터 예매를 하고 준비하였으며, 경기당일 의상을 빌려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였다. 이전의 평가전과 달리 수원월드컵 경기장에 총 40,127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으며, 경기 시간 내 시종일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원익홀딩스에서 이날 경기를 참석한 부서는 경영지원본부와 영업본부 인원으로 약 10명의 사람들이 이 날 경기를 직접 관람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주장을 자처하며 왼팔에 주장완장까지 두르고 관중석에서 열띤 응원을 펼친 이상훈 과장은 “후반전 38분경 아쉬운 찬스의 무산으로 망연자실한 모습이 화면에 잡혀 매우 당황했다. 그 덕분에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에게 모두 연락이 왔다.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하였다.(이상훈 과장_사진참조)

이날 경기를 함께 본 직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원익홀딩스 임직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국가대표팀 축구경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하였으며, “직원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응원하고, 시원하게 맥주와 치킨을 먹고 마실 수 있어서 좋았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갖고 싶다”라는 소감을 전하였다. 또 국가대표팀 축구경기를 처음으로 직접 관전한 직원은 “이렇게 경기장이 생각보다 작고, 선수들이 잘 보이지 못했다. 손흥민이 얼굴이 작고 잘생겼다”라는 소감을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비록 이날의 경기는 0:0으로 비겼지만, 남미의 강호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저력을 볼 수 있는 경기였으며, 그에 따라 직원들의 애국심도 높아지는 자리였다. 이러한 자리가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임직원 전체가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원익아이피에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박람회 참여

2018년 원익아이피에스는 신규 직원을 대거 채용하였다. 원익 그룹공채 외에도 신입 수시채용, 경력직채용, CS공채, 사내추천제 등을 진행하여 우수인력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해를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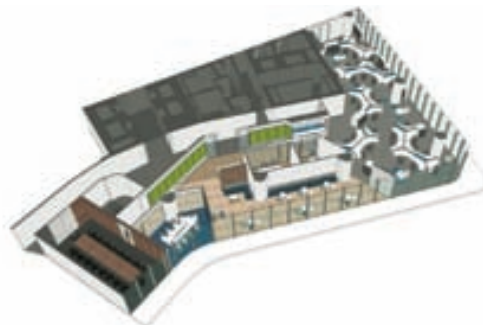
원익IPS는 올해 초 680명에서 9월 현재 860명까지 인원이 확대되었으며, 연말 930명까지 채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사팀에서는 다양한 채용박람회에 참석하여 회사 홍보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국내 우수대학 캠퍼스 리쿠르팅, 외국인채용박람회, 석/박사 채용박람회, 반도체장비우수기업 채용설명회, 삼성협력사채용박람회 등 각종 채용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인사팀 채용담당자는 “채용박람회에 참석을 하다보면, 장비업체로 진로를 결정한 구직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익IPS는 국내 최고의 장비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어 해가 거듭될수록 구직자에 대한 네임벨류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다. 하지만 우수인재확보를 위해선 우리가 구직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한다. 또한, 홍보 채널 다변화를 위한 홈페이지 리뉴얼, 채용사이트 개설 등을 준비중이다.” 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해외사이트의 확대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위해 1000억달러(약 112조4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굴기를 선포하였고 전세계 디스플레이 수요의 50% 발생하고 있는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원익IPS는 그 세계 공장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 및 물적/인력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으며 발빠르게 선제 대응하여 18년도 상반기 중국의 4곳 도시(하북 GU'AN, 호북 WUHAN, 사천 MIANYANG, 복건 JINJIANG)에 신규 사무실 구축하여 원만하게 설비 반입을 완료하였고 기존 IPS 우시 법인이 확대이전 되었으며 금융경제의 중심 상해에 있는 사무실은 반도체 3개 계열사가 입주한 영업지사로 법적 지위가 상승 되었다.

현재 WONIK CHINA합자법인에 예하에 있던 서안SITE는 Q&C의 사세확장으로 분리하여 별도 IPS 자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추저우 지역에 1,000억 규모의 설비 투자로 SITE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작년동기 대비 28명으로 운영되던 해외SITE 인력은 연말까지 100명 전후로 운영될만큼 중국의 출사표는 대내외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내후년부터 난징, 선전, 우한, 청두 지역 등 총 5~7곳의 지역 등 진출이 점쳐지고 있어 전세계 자원을 끌어당기는 위력은 더 확대될 것이다.

원익IPS 인사팀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은 중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습 원년을 기회로 삼아 매출을 끌어올려 2020년 매출 1조 2천억 글로벌 Top 10 장비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비즈니스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원익큐엔씨

2018 LAM Research 'Supplier Excellence Award' 수상

원익큐엔씨는 지난 9월 19일 개최된 Lam Research의 '2018 Supplier Day'에서 'Supplier Excellence Award'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램 리서치는 반도체 업계에 웨이퍼 제조 장비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협력사와의 협력 강화와 상생을 위한 기회를 재탐색하고 고객과 협력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Supplier Day를 개최하였으며, 세계 각 국에서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 램 리서치는 글로벌 협력사 중 성과, 서비스, 협력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낸 6개의 기업에게 상패를 수여하였으며, 원익큐엔씨도 우수협력사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원익큐엔씨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램 리서치로부터 상패를 받게 되었다. 한편, 원익큐엔씨는 지난 8월 C캠퍼스에 3천 평 규모의 램 기계가공 공장을 준공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퀵츠사업부에서 램 리서치에 공급되는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이번 수상과 사업장 준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램 리서치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타 고객사에도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나갈 것이다.

원익의 미래를 이끌어갈 Beginner's Day 시행

최근 늘어난 신규입사자들의 조기 적응과 기업문화 융화를 위하여 매월 신규입사자를 위한 Beginner's Day를 시행하고 있다. Beginner's Day의 대상자는 입사 3개월 이내의 사원급으로 입사한 지 2개월 째 되는 달에 참석을 권장하고 있다. 1, 2차 Beginner's Day의 경우 '18년 5~6월 입사자를 대상으로 8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저녁시간에 사내 게스트룸에서 진행하였고 피자, 치킨, 맥주 등 먹거리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회사생활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준비된 음식을 먹고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였다. 이후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 제안 및 건의, 입사 소감 등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입사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사원들이라 입사 전후 회사에 대해 느껴지는 차이점과 면접 당시의 에피소드가 가장 큰 이야기거리였다. 전반적으로 모두들 선배사원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즐거운 회사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으며 Beginner's Day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첫 번째 Beginner's Day 행사에는 임창빈 대표이사도 깜짝 방문하여 신입사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하며 자리를 빛냈다. 원익큐엔씨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본 행사를 개최하여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익큐엔씨

일석이조의 기쁨, 사내 플리마켓 개최

원익큐엔씨는 지난 9월 5~7일 3일간 두 번째 사내 플리마켓을 개최하였다. 원익큐엔씨는 2년 전에도 동일한 행사를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과 나누고 그 수익금은 좋은 곳에 쓰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8월에 사내 봉사단인 원익나눔회와 기업문화 TFT의 도움을 받아 사내 홍보를 통해 물품을 접수하였다. 기부자가 직접 책정한 금액으로 사내에 전시하고 점심/저녁시간을 활용해 현장 판매를 진행하였다. 약 200점의 다양한 물품이 전시되었는데 올해는 유독 도서, 인형, 완구 등 유아용품이 많았다. 현장판매 기간 동안 대부분의 물품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갔으며, 3일 동안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절반 가격으로 인하하여 온라인 댓글 접수를 통해 추가 판매하였다. 이후 남은 물품은 비영리기관에 기증하였으며 플리마켓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회사 비용을 일부 더하여 구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부할 계획이다. 플리마켓은 직원 모두가 기부자이자 구매자가 되어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익큐엔씨는 앞으로도 많은 임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원익테라세미콘

2018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샵

원익테라세미콘은 지난 8월 22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2018 하반기 경영전략워크샵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샵 취지는 신규 경쟁사 등장 등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절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워크샵 Agenda를 크게 양산 체계 구축, 품질혁신 그리고 소통 및 협업의 조직문화 세 가지로 설정했으며, 반도체사업부와 디스플레이사업부의 리더급 인원 52명이 각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표이사는 워크샵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안건과 대응방안들이 2020년 매출 4000억 달성 목표를 이루는 밑거름”이라며, 금년 하반기 내에 신공정 확대, 신고객 확대라는 경영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반도체사업부 진위사업장 이전

원익테라세미콘 반도체사업부가 평택 진위산업단지에 위치한 원익IPS사옥 7층에 새 동지를 틀었다. 이번 사업부 이전의 취지는 국내 반도체장비 업계 리딩기업인 원익IPS와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파티클 관리, 두께 측정 등을 위한 각종 분석 인프라를 함께 사용하며 비용절감과 함께 노하우 공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단일 공장에서 산업단지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각종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서 전에 비해 자유로워져 더욱 폭넓은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익IPS반도체 장비는 매엽식(single)으로 좀 더 정밀한 공정 처리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 원익테라세미콘은 효율적 양산이 가능한 배치식(Batch)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기술을 사용하는 두 회사가 공동의 연구 및 제조시설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장기적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 발전시킨 신기술 개발에 상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한 기대를 품고 안고 지난 8월 17일 반도체사업부 인원 약 70명이 진위사업장 임주를 완료하였으며, 8월 20일 그룹 부회장님을 비롯한 양사 임원들이 함께 모여 성공적인 진위 사업장 이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8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샵



반도체사업부 진위사업장 이전

원익테라세미콘

CS 반도체 트레이닝 센터 오픈

원익테라세미콘은 평택 CS 사무실에 반도체 트레이닝 센터를 오픈하였다. 새로 오픈한 트레이닝 센터는 현재 자사에서 운영중인 반도체 장비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현장과 동일하게 구축하였기에 효과적인 실습 위주 교육이 가능하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7월 27일 원익테라세미콘의 주요 임원들이 평택 CS 사무실에 방문하여 트레이닝 센터 오픈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센터 내부 교육용 장비의 작동을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반도체 트레이닝 센터를 오픈하게 된 취지는 첫째, 신규직원의 빠른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함이다. 신규직원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경우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장 실습을 통해 기본 기술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CS 공채 1기로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새로 마련된 교육장에서 CS엔지니어로서 기초 역량을 튼튼히 다질 예정이다. 둘째로 기존직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평준화 목적이 있다. 같은 문제도 사람마다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므로 교육장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최적의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반복학습을 도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협력업체 인원들의 역량향상에도 반도체 트레이닝 센터를 활용하여 더 나은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익테라세미콘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CS 공채 1기 기술교육

CS부서 인원의 역량 향상 및 전문화는 원익테라세미콘이 다년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방향성 중 하나이다. 이에 2018년부터 CS부서 신규입사자는 바로 부서 배치를 하지 않고 총 6주간 기술교육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다. 금년 7월 입사한 CS 공채 1기 신입사원들 역시 입사 후 집중적인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커리큘럼은 장비의 구조, SW, 공정, 제조 과정 등을 두루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에 따라 과장급 이상의 교육 담당자가 배정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성과 평택에 위치한 교육장 내 교육용 장비를 직접 작동해보며 실습 위주 교육을 하고 있어 경력이 전혀 없는 신입사원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CS공채 1기 기장인 박우진 사원은 “원익테라세미콘만의 체계적인 장비 이론 교육과 평택 교육장내 실습을 병행하면서 기본적인 장비 지식을 쌓고 CS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며 앞으로 CS 핵심인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CS 반도체 트레이닝 센터 오픈



CS 공채 1기 기술교육

원익테라세미콘

임직원 만남의 장

자유로운 소통, 행복한 만남! 원익테라세미콘은 지난 7월9일 임직원 만남의 장이라는 이름으로 분기 조회를 진행하였다. 소통과 만남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본행사 전에 다과를 함께하며 담소를 나누는 티타임을 가졌다. 이후 행사는 신규직원 소개, 상반기 우수 학습조직 및 우수사원 시상, 경영실적 공유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수 학습조직의 경우 올해 경영방침이 교육과 육성의 조직문화임을 반영하여 신설된 시상항목이다. 상반기 전사 학습조직 활동 실적을 횡수, 시간, 참여인원, 결과공유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우수 조직 5개에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마지막으로CEO가 직접 상반기 경영실적을 공유하고 임직원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조회를 마치고2부 순서로는 초청강연이 이어졌다. 강사로는 국내 1호 정리컨설턴트 윤선현 대표를 초빙하여 “고성과 창출을 위한 일하는 방식 변화”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윤선현 강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업무와 미루는 습관 극복 및 정리정돈을 실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인증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일생활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원익테라세미콘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다방면으로 발빠르게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항목은 총 세 가지로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가 그 내용이다. 실제로 원익테라세미콘은 사내방송을 통해 효율적 업무와 정시 퇴근에 대한 캠페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X-배너, DID, 화면보호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사내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을 상시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의 결과 임직원들도 근무시간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정시퇴근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임직원은 고용노동부와 제휴된 헬스, 외식, 의료, 호텔, 놀이공원 등의 시설에서 할인쿠폰을 활용 수 있으므로 원익테라세미콘 임직원 역시 더욱 풍성한 여가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임직원 만남의 장



임직원 만남의 장

씨엠에스랩

국군 장병들에게 마스크팩 1만장 기증

지난 8월, 씨엠에스랩은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마스크팩 1만장을 기증했다.

씨엠에스랩이 방문한 부대는 육군 7사단 칠성부대로 강원도 화천에서 휴전선 중동부를 지키고 있는 부대이다. 씨엠에스랩 임직원이 부대에 도착하자 군악대와 김종철 사단장, 그리고 참모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이진수 대표이사는 기증 행사 진행 전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장병을 기리는 ‘충혼당’을 방문하여 묵념을 하며 ‘우리가 사회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군인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자리를 이동하여 제품 기증 행사를 진행하였다. 씨엠에스랩에서는 준비한 제품을, 칠성부대에서는 씨엠에스랩에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달했다.

기증된 제품은 셀퓨전씨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퍼스트 쿨링 마스크’로 강한 자외선에 달아오른 피부 온도를 -5도까지 감소시켜주는 제품이다.

셀퓨전씨 마케팅 담당자는 “이 제품은 피부 진정에 탁월하고 쿨링 지속력이 좋아 군인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며 “올해 혹독한 폭염에도 밤낮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군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해당 제품을 기증하게 됐다” 고 밝혔다.



원익

(주)원익 일본 화장품 브랜드 'FLOWFUSHI(후로후시)' 국내 단독 론칭

2018년 10월 (주)원익을 통해 일본의 마스크라 및 아이라이너 1위 브랜드인 “FLOWFUSHI(후로후시)”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후로후시는 2011년 설립한 일본 화장품 브랜드로 높은 기술력과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로 인기를 끌고 있다. 립 트리트먼트 LIP 38°C의 2018 마리끌레르 일본상을 포함하여 2017년 기준 일본 내 코스메틱 어워드 사상 최다 142관 달성하였다. 특히 ‘모테마스카라(Mote Mascara)’와 ‘모테라이너(Motelinier)’는 일본 마스크라 및 아이라이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끈 제품으로 후로후시만의 독자적인 엔드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메이크업과 동시에 속눈썹 케어가 가능하다. 모테마스카라는 9가지 맞춤형 스마트 브러시로 개인의 취향과 속눈썹 모양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미온수만으로 간편하게 클렌징할 수 있다. 모테라이너는 쿠마노와 나라현의 전통 붓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아이라이너로 섬세한 아이라인 연출이 가능하다. 후로후시는 모테마스카라, 모테라이너를 포함하여 립 트리트먼트, 리퀴드 파운데이션 등 8개 라인업 총 3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후로후시는 국내에서 일본 여행 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제품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세계 1위 뷰티 유틸버인 포니(PONY)가 즐겨 사용하는 제품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주)원익은 10월 FLOWFUSHI 공식 론칭 행사를 시작으로 후로후시 국내 단독 론칭을 앞두고 있으며, 메이저 온라인몰을 시작으로 면세점, H&B 스토어 순으로 입점하며 사업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일본 마스카라 & 아이라이너 1위 브랜드
FLOWFUSHI 국내 단독론칭



10월

주요 메이저 온라인몰에서
후로후시를 만나보세요!

생일 축하해요

11~12월 생일을 맞으신 분
신청해 주세요.
찾아가 축하해 드립니다.

서프라이즈~ 축하드려요



밥 한번 먹어요

임직원 간의 소통을 맛집을 통해 공유합니다.
같은 업무 외에는 만날 수 없지만,
사보를 통해 인맥도 쌓고,
몰랐던 분·아는 분과 더 가까워지는 식사 기회.
특별한 만남을 신청해 주세요.

마음껏 드셔도 공짜



임원1 + 계열사 직원3

회사 주변 맛집

회사 주변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
계열사별 교류가 활발하여 방문할 때
유용한 꿀팁!
홀로 먹어도 외롭지 않아.
거래처와의 만남도

스타벅스 카푸치노 기프트콘



당첨자

t h a n k s f o r y o u



지난호 사보 참여자 - 스타벅스 상품권 2만원

원익큐브 / 이지현, 김미선, 김보민
원익큐엔씨 / 김동현, 정지형
원익투자파트너스 / 오윤진, 김호성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 스타벅스 카페라떼

원익홀딩스 / 김혜문, 유소연
원익머트리얼즈 / 이보름, 임보미, 박동신, 이병섭
원익테라세미콘 / 권기용, 심규민
원익큐엔씨 / 박향희, 정입숙, 권용미, 박언찬
원익 / 박종찬
씨엠에스랩 / 오인선, 류현희

사보와 한몫이 되라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씨엠에스랩 / 김태영
원익머트리얼즈 / 김강민

EDITOR'S LETTER

CMS LAB에서 young derma, easy derma, fun derma!
트렌디한 더마 브랜드 스위스킨을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 매니저 김태영입니다!
이번 사보에서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코너가 너무 재밌었어요.
두번째 여자 캐릭터를 찾으려고 사보를 정말 7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알고보니 CMS LAB의 야구 본데이~ 기사가 실린 페이지에 있어서! 어찌나 놀랐던지!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걸까요? ㅋㅋ
CMS LAB 사우 여러분들과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숨은 캐릭터도 찾으며 든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숨은 그림 찾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익머트리얼즈_김강민 입니다.

재밌는 사보를 읽다보니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지도 몰랐습니다.

자주 접할 수 없었던 타계열사 소식과 행사 등을 사보로 접하면서 다시 한번 원익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소식 많이 사보에 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리더를 찾아라

우리 회사의 리더를 찾습니다.
‘우리 00님이야말로 말로 리더지!’
확신이 들면 추천해 주세요.
추천만 하셔도 선물을 드립니다.

추천해 주신 분, 선정 되신 분
스타벅스상품권 각 2만원



BOSS vs LEADER 코너에서
콩트로 각색하여 드립니다.

우리들의 덕후

매니아, 콜렉터, 애호가, 취미, 특기 등
그 속에서 찾은 행복을 함께 공유해요.
(문학, 예술 포함)

스타벅스상품권 2만원

원익덕후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터치미

겨울호 주제 **#한복**
연관된 **사진/코멘트**를 보내주세요.

스타벅스 카푸치노2매 기프티콘



p r e s e n t

원익인을 위한 선물이 그대 곁에 있습니다.

이번 호를 읽고 코멘트만 남겨주셔도 선물을 드립니다.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은 원익인의 주인공입니다.
코너 추천·사연은 기한 없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사보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

people_page@naver.com

보내실 때 - 코너제목/ 이름/ 부서/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세요.

10. 20일까지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선물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시를 찾습니다

궁금해 궁금해~ 이 나라!
꼭! 찍어 주시면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해 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매 기프티콘

WONIK WORLD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사보 곳곳에 원익인을 응원하는 캐릭터가
숨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선물이 찾아갑니다.

찾아 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56호에서 위 5개의 캐릭터를 찾아주세요.

사보와 한몸이 되라

사보를 보셨다는 인증샷과 코멘트를 남겨
주시면 선정을 통해 선물을 드리오리다.
혼자도 좋고, 가족도 좋고, 멍멍이도
함께라면 누구라도 좋아요.

보내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카푸치노 기프티콘

